

경기문학 진흥방안 세미나

지역의 문학활성화와 문학관

일시 : 2006년 7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 경기문화재단 2층 전시실

주최 : 경기문화재단

진행순서

시간	진행내용
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30 ~ 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사회 : 최지연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 인사말 :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14:40 ~ 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워크숍 : 경기도의 문학관 운영과 건립추진 사례 - 진행 : 김현탁 (수원 문인협회장) - 운영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병화 문학관 : 조진형 (조병화 문학관장) • 만해기념관 : 전보삼 (만해기념관장) - 건립추진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 소나기 마을 : 김종희(건립추진위원회) • 화성 흥사옹 문학관 : 심재만(화성시 문화홍보과장) • 의정부 천상병 문학관 : 김인숙 (의정부시 문화예술담당) - 질의응답
15:50 ~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16:1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 세미나 : 지역의 문학활성화와 문학관 - 좌장 : 조창환 (아주대 교수) - 발제 :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문학관을 통한 문학활성화 방안 -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상국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장) - 문학인의 활동 관점에서 • 이덕규 (시인, 화성문화원 이사) - 지역 문화의 거점 관점에서 • 표신중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 지역문학 진흥정책 관점에서 - 종합토론

목 차

조병화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9
조진형 (조병화문학관 관장)	
만해기념관의 운영사례 연구	16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 신구대 교수)	
‘황순원 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 건립추진	26
김종희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경희대 교수)	
화성시 노작 문학관 건립 계획	33
심재만 (화성시 문화홍보과장)	
천상시인 ‘千祥炳 문학관’ 建立 計劃	39
김인숙 (의정부시 문화예술담당)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45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화예술원 원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에 대한 토론문	86
전상국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 촌장)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문학관의 전망	89
이덕규 (시인, 화성문화원 이사)	
지역문학관은 어떤 토양 위에 건립되는가	92
표신중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1부 워크숍]

경기도의 문학관 운영과 건립추진 사례

▣ 조병화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조진형 (조병화문학관 관장)

▣ 만해기념관의 운영사례 연구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 신구대 교수)

▣ '황순원 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 건립추진

김종희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경희대 교수)

▣ 화성시 노작 문학관 건립 계획

심재만 (화성시 문화홍보과장)

▣ 천상시인 '千祥炳 문학관' 建立 計劃

김인숙 (의정부시 문화예술담당)

조병화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조진형 (조병화문학관 관장)

1. 연혁

1962년 조병화시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인 안성 난실리 어머니 무덤 옆에 묘막을 짓고 '편운재(片雲齋)'라 이름 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가끔 이곳에 내려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현재 조병화문학관의 모태가 된 편운재의 시작이다. 이후 1986년 인하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집필 공간 및 아트리어로 쓰기 위해 편운재 옆에 '청와헌(聽蛙軒)'을 짓고 고향 가꾸기를 시작하였다. 마을 앞에 버스 정류장을 비롯하여, 아이들 놀이터, 운동장, 마을휴게소, 장승, 공회당 텔레비전 등 문화시설을 자비로 제공하고, 버스 정거장엔 “꿈”이란 기를 세우고, “우리 난실리”라는 시비도 세우는 등 고향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일을 하였다.

이에 문화부(당시 장관 이어령)에선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를 “문화마을”로 지정하여, 1990년 6월 3일 “꿈의 마을”로 문화부에 등록하였다. 이를 계기로 문화부에선 1992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건물을 짓기로 하였으나 정부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가 난실리 주민에게 토지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 조병화시인이 개인 소유인 밭(난실리 337번지) 315평 중 일부를 대지로 제공하였다.(당시 안성군수 조성현) 그리하여 1992년에 국가예산이 집행되어 1993년 2월 6일 '편운회관'이 문화사랑관(등기상 마을회관)으로 준공되었다(당시 안성군수 김규완).

조병화시인은 이 편운회관을 본인의 기념관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평생 쓰고, 그리고, 모아온 서적, 그림, 사진, 예술품 및 기념품 등을 전시 보관하고, 찾아오는 문인들, 제자들, 애독자들을 맞이하여 시낭송회도 하고, 세미나도하고, 연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편운회관 건축에 협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운회관이 등기상의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조병화 개인의 기념관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병화시인은 다시 개인소유의 대지를 제공하고 안성시의 협조를 얻어 1995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마련하여 주웠다. 이리하여 편운회관은 명실 공히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은 무시하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향온, 향습기능 및 수장고도 없어 유물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학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03년 시인이 작고하신 후 예는 건물 가득히 싸여 있던 유물들을 정리하고 전시실을 현재의 모습으로 재단장하여 편운 조병화시인을 기리는 기획전시와 상설 전시를 하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도 재정비하여 문학관 앞뜰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가능하도록 잔디밭도 넓히고 편운동산에 봄 여름 가을 늘 꽃이 있도록 꽃나무도 계속 심고 있다. 2005년부터는 회관의 이름도 편운문학관에서 조병화문학관으로 바꾸었다. 참고로, 편운동산의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 편운동산 안내도 ▣



편운동산의 좌측 끝 서문 앞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은 연건평 85평 규모의 2층 건물이며 8평의 부속 건물을 두고 있으며 1층에 전시실 3실, 2층에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다. 제1전시실에는 기획전시물과 그가 남긴 53권의 창작시집, 수필집, 화집 등 160여 권의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늘 즐겨 쓰던 베레모, 입에 물었던 파이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펜, 많은 여행에서 모은 소품에서 조 시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제2전시실에서는 그의 럭비 관련 유물과 학창시절 성적표, 그가 위안으로 그렸던 그림을 비롯하여 화려했던 그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등 상패와 기념패, 명예박사학위증 및 신문기사스크랩과 사진들이 있다. 제3전시실에는 조 시인을 추모하는 문인들의 시화와 방명록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시집, 엽서 등을 구입하고 문학관과 편운동산 관람 기록도 남길 수 있다.

2. 운영체제

현재 조병화문학관은 조병화 시인의 유족이 개인의 사재를 털어 운영하고 있다. 단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꿈과 사랑의 시 축제’와 “찾아가는 문학관” 행사의 경우 안성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매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를 지닌다. 이 외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 보수는 모두 개인의 사재를 털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조병화시인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회원 확보와 기금모집에 힘을 쏟려고 하고 있다.

3. 운영프로그램

조병화시인 일주기를 맞이하여 안성시에서는 조병화 주간을 제정하고 그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기획해 보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래서, 조병화시인의 탄생 일인 5월 2일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에는 5월 4일에서 5월 9일까지 '제1회 꿈과 사랑의 시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 유명문인들을 편운동산에 모시고, 조병화 시인을 기리는 '꿈의 시화전', '조병화의 시세계' 심포지엄과 경기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낭송대회'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병화문학관에서는 안성시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5월 첫째 주에 '꿈과 사랑의 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제2회를 맞이하여 '조병화의 시 생애 사진전'을 기획하여 조병화 시인의 창작시집 53권을 중심으로 시집의 서문, 대표 시와 당시의 배경이 되는 주요 사진을 전시하였다. 또한, 시인으로 화가로, 교육자로, 스포츠맨으로 화려한 삶을 살다간 조병화의 삶을 되짚어보는 추억담의 자리 '조병화를 말한다'를 마련하였다. 2005년도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참관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다 함께 시집 꾸미기', 사회적 소외 계층인 탈북자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위안을 주기 위하여 안성 소재 새터민 사회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열린 '꿈의 시낭송회-찾아가는 문학관'과 평택지역 외국인을 위하여 우리말과 영어로 진행된 '외국인 시낭송회'를 하였다. 외국인 초청을 계기로 '조병화의 시 생애 사진전' 도록의 영문판을 한국문화예술원의 후원을 받아 제작도 하여 조병화문학관의 국제화,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행사는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이들에게 경기도의 관광명소 영상물도 보여주고 경기도 관광안내책자와 기념품도 나누어 주는 등 경기도 관광프로그램 개발 시 조병화문학관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2006년에는 3회째를 맞이하여 '꿈과 사랑의 시축제'를 다음과 같이 총 여섯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마당은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편운문학상 시상식으로, 시 본상에 유재영 시인, 평론 본상에 윤호병 평론인, 시 우수상에 윤희 시인을 선정하고 문학계의 많은 인사들을 모시고 5월 2일에 현대문학관에서 시상식을 갖고 시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문학계와 관계인사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둘째 마당은 2006 월드컵 독일개최를 계기로 조병화 시인의 유럽여행 스케치 작품 및 시를 보여주는 조병화 유럽여행 스케치전 '그때 그곳'을 기획하여 10월 말까지 전시하고 있다. 조시인은 십여 차례 시화와 유화 전시회를 가졌으나 스케치만을 모아 보여주는 전시는 이번이 첫 번째 시도이기에 더욱 의미 깊다 하겠다.

셋째 마당은 조병화 시인의 제 1시집부터 제 24시집 중에서 젊은 문학평론가들이 대표시를 선정하여 그들의 해설을 곁들여 이야기하는 '조병화의 대표시를 말 한다'를 진행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 백일장과 병행하여 젊은 세대의 참가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병화의 시세계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넷째 마당은 2005년에 시작한 찾아가는 문학관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새터민 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하여 시 낭송회를 가졌다. 또한, 2006년에는 2005년에 전시하였던 '조병화의 시 생애 사진전'을 타지방의 여러 문학관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다. 이미 6월 3일에서 6월 20일까지 진해에 있는 경남문학관에서 전시를 하였고, 8월에는 문학의집. 서울, 10월에는 목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 할 예정이다.

다섯째 마당은 문단 미 등단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6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편운 시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행사 당일 문학관에서 백일장을 진행함과 동시에, 조시인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편운동산을 둘러보고 도시락을 먹으며 '구름' 과 '어머니'의 시제로 시를 써서 제출하게 한 뒤 심포지엄참석 후 시상식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여섯째 마당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하여 조병화문학관을 둘러보고 안성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안성 문학투어'로 진행되었다. 4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안성 맞춤박물관과 남사당공연을 관람하였다.

올해의 행사구성은 한정된 관객층의 행사에서 벗어나 각 행사마다 다양한 관객층, 또한 소외받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통한 삶의 위안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심을 두었다. 또한 조병화 시인의 문학은 물론 조병화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안성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문학관 자체만의 발전이 아닌 지역과 연계된 하나의 문화코드를 만들 수 있는 주춧돌을 두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4. 운영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1) 휴식공간의 부족

문학관은 단지 문학 자료들을 보존, 전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삶과 영혼의 위안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전문적인 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에 따른 연구 차원으로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더라도, 휴식 및 관광의 차원에서 문학관을 찾게 된다. 그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것을 계기로 작게나마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문학을 통해 더 깊은 삶의 위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문학관의 역할중 하나라 생각한다. 즉, 문학관은 자료보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학에 대한 관심과 그를 통한 개인의 위안과 즐거움을 만들어 가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병화문학관의 부족한 면으로 우선 휴식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문학관을 찾은 사람들이 단순히 문학관에 전시된 자료들만 살펴보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삶에 지친 발걸음들을 잠시나마 멈추고 나무와 꽃들이 만들고 있는 자연의 공간에서 차 한 잔의 여유라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 자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현재 조병화문학관에는 그러한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다. 시축제가 열리는 5월의 경우에는 잔디밭에 임시로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여 식사 및 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상설테이블의 설치에 관리 및 유지 차원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시 축제를 제외한 기간에 문학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그저 문학관을 한 번 둘러보고 돌아가게 된다. 이에 조병화문학관은 방문객들이 직접 차를 타서 마실 수 있는 셀프차집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 관리하는 문학관이니만큼 예산 등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관리 인원 및 예산의 부족

현재 조병화문학관은 관장, 직원 1명, 인턴사원 1명, 문학관 관리 임시직원 1명, 문학관 안내 임시직원 1명등 총 5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한국문학관협회의 지원을 받는 인턴사원을 제외하고는 그 인건비 또한 문학관 운영자 개인의 사재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건비 외 건물 관리 및 문학관 운영 전반이 개인의 사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 및 전시 공간, 화장실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또한 예산 부족으로 개선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부족 및 운영인원의 부족으로 현재 조병화문학관은 상시개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조병화 문학관은 4월에서 10월 사이에 화요일, 토요일에만 개관을 하고 있다.

3) 지역문화와의 연계 부족

지역문학관은 단지 문학관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하나의 문화코스로 자리 잡을 때 그 발전 및 효용성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조병화문학관의 경우 안성지역의 다른 문화시설 및 관광지와 연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통편의 불편으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안성지역의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스의 개발 및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조병화문

학관 뿐만 아니라 안성의 다른 문화시설 및 관광지가 함께 발전하고 이로 인해 안성의 전체적인 인지도 및 문화적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조병화문학관은 금년 시 축제 중 위와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하여 조병화문학관을 포함, 안성의 여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안성문학투어’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지역문학관이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기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건의사항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개인이 문학관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문학관운영이 사적인 것 보다는 공적인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음으로 지자체의 지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조병화 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내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원 확보

- 1) 상시 사무원 2명을 채용하여 소장품이 체계적으로 전시되고 보존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보관 유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함.
- 2) 상시 관리인(건물 관리 및 주변 조정) 1명을 채용하여 문학관 건물 유지 관리, 보수를 하여야 함
- 3) 전문안내요원(docent) 2명을 채용하여 전시물 및 관내 유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시설 확충

- 1) 냉난방 시설, 향온 향습시설을 갖춘 기획 전시실 1실, 상설 전시실 2실 및 수장고를 확보 하여야 함.
- 2) 남녀 화장실 각 2개와 다과제공 가능한 휴게실을 갖추어야 함,
- 3) 영상/음향/무대 시설이 갖추어진 세미나실/강당을 갖추어야 함.
- 4) 영상안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3. 도로안내 표지

- 1) 주요 국도 및 지방도에서 조병화문학관 또는 난실리로 오는 곳을 표시하여야 함.
- 2) 주요 지도/GPS에 조병화문학관 및 난실리를 표시하여야 함.

4. 홈페이지 홍보

- 1) 각종문학사이트와 링크하여야 함.

□ 운영현황	
○ 설립목적	시인 조병화의 유품 및 창작품들을 전시하고 조시인이 전 생애의 창작활동을 통해 추구해온 꿈과 사랑의 시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한국 현대문학의 한 발자취를 길이 보존하고자 한다.
○ 개관년도	1993년
○ 대표자명	김용정
○ 설립주체	유가족
○ 운영주체	조진형, (사)조병화기념사업회(예정)
○ 법인등록여부	2006년 9월(예정)
○ 회원수	
○ 주요이용단체명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인 문학씨클
□ 건물현황	
○ 건축비	총 1 억(국비)
○ 소유관계	대지(조성환), 건물(안성시)
○ 규모	
- 건물(평)/대지(평)	대지(315평), 연건평(85평), 부속건물(8평)
- 지상(층)/지하(층)	지상 2층
- 주차가능대수	20대
○ 공간구성	전시 3실, 세미나실 20평, 부속건물 8평
□ 소장자료(점)	25종 1020여점
□ 인력현황	
○ 조직구성	대표: 김용정, 관장: 조진형 사무직: 최윤성, 인턴사원: 맹재범 안내요원: 전옥년, 관리요원: 조우형
○ 상근/비상근직원수	상근: 2명/비상근: 4명
□ 연락처	
○ 대표전화	031-674-0307(안성), 02-762-0658(서울사무소)
○ 팩스	02-3673-0436
○ 핸드폰	017-263-0434(대표), 011-9024-0439(관장)
○ E-MAIL	david2051@hanmail.net
□ 홈페이지	www.poetcho.com
○ 운영방법	자체
○ 이용형태	주기적 행사 홍보/문학관 홍보/조병화시인 년보, 시, 그림 등 소개/ (사)조병화기념사업회 홍보/기금 및 회원 모집(예정)
□ 주요 운영 프로그램	
○ 상설 프로그램	편운문학상 시상식: 매년 5월 2일 꿈의 사랑의 시축제, 심포지움, 찾아가는 문학관-꿈의 시낭송회, 편운 시 백 일장: 매년 5월 첫째 주 기획전시: (4월-10월)
○ 비상설 프로그램	문학특강, 시낭송회, 문학투어, 시 생애 사진전-전국순회전시
□ 연간 예산규모	80,000(천원)
○ 자부담	57% 46,000(천원)
○ 지방비	25% 20,000(천원)
○ 문화예술위원회	18% 14,000(천원)
□ 예산 지출구성액	80,000(천원)
○ 사업비	63% 50,000(천원)
○ 인건비	25% 20,000(천원)
○ 경상비	6% 5,000(천원)
○ 시설영선보수비	6% 5,000(천원)

만해기념관의 운영 사례 연구

전 보 삼 (만해기념관장, 신구대학 교수)

- I. 머리말
- II. 만해기념관의 실태와 현황 분석
 - 1. 만해기념관은 어떤 곳인가
 - 2. 만해기념관 설립 과정과 운영주체
- III. 만해기념관의 운영 프로그램
- IV. 만해기념관의 살아남기 전략
 - 1. 접근성이 양호한 문학관 만해기념관
 - 2. 지역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된 만해기념관
 - 3. 문학관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만해기념관
- V. 맺는말

I. 머리말

경기문학 진흥 정책 세미나에서 만해기념관의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역문학 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지역문학관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학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문학관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학관을 운영하여온 한사람으로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문학관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보다도 미래는 꿈과 상상력과 자아의 실현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화적 역량이 지배 되는 사회로 변할 것이란 확신에서 문학관운동을 하여 왔다. 그러므로 문화시설로서의 문학관이 갖는 위상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문학인이 남긴 유물을 정리하여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문학관 운동은 이제 시작 단계다. 만해기념관의 운영사례로 먼저 만해기념문학관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보자.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만해기념을 통하여 문학관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I. 만해기념관의 실태와 현황 분석

1. 만해기념관은 어떤 곳인가

만해기념관은 건전한 문학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5년 전 1981년 10월에 설립된 만해 문학 기념관이다. 만해기념관은 현재 국가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내에 들어서면 우리들 눈에 익었던 [님의 침묵] 시집 중 '나룻배와 행인'의 시비가 눈에 들어오고, 그 옆자리에는 원로 조각가 민복진의 작품인 '만해의 흉상'이 우리를 반갑게 미소 지으며 맞이하고 있다.

만해기념관 내부에는 일제 강점기 동안 금서였던 [음빙실문집], [영환지략], [월남망국사]등 만해 수택본들과 우리 국문학사의 희귀본인 사랑의 증도가 [님의 침묵] 초간본을 위시하여 160여종의 판본, 세계 각국의 언어(미국, 영, 프랑스, 캐나다, 체코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시집 [님의 침묵] 판본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만해가 생전에 낸 각종 저술 [조선불교유신론](1912년), [불교대전](1913년), [정신 강의 채근담](1917년)등의 원본과 만해의 친필유묵, 3·1 독립운동으로 옥중에서 "독립은 민족의 자존심", "맹렬한 독립론"을 전개한 만해의 옥중 투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 1962년 정부가 추서한 대한민국 건국 공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훈기번호 제25호)이 전시되어 있으며, 만해 문학 관련 학술 논문 720여 편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상설전시와 특별기획전을 통하여 문학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킨 문학 기념관이다. 또한 만해기념관은 문광부에 등록(제244호)된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는 문학관이다.

2. 만해기념관 설립 과정과 운영 주체

1) 만해기념관 태동기(1963-1980)

① 만해를 만나다.

만해기념관의 출발은 긴 태동기(1963-1980)거쳤다. 그리고 만해기념관 설립(1981-현재)과 운영시기의 긴 여정이었음을 먼저 밝힌다. 만해기념관 태동기는 논자의 고향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원도 영동의 중심도시 강릉이 논자의 고향이다. 60년대 초반 하여도 전국의 교통망이 발달하지 않아 강릉 또한 교통의 오지로 남아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문화의 충격이 없는 잠자는 도시였다. 그 곳은 어린 나에게도 답답하게 여겨지던 곳이었다. 첩첩 산중 백두대간의 준령으로 쌓여 있던 도시였다. 그런 가운데 강릉시 금학동 소재 관음사라는 사찰은 나에게 호기심 천국이였다. 당시만하여도 강릉을 기점으로 하여 오대산이나 설악산을 갈 수 있었다. 말하자면 강릉은 영동지방의 교통 요충지요 많은 객승들이 머무는 장소였다. 그러한 객승들은 나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파랑새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러한 객승들로부터 듣는 밖깁 세상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대상들이

었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해를 만나게 되었다. 어느 사이 만해 열반제(6월29일)를 올리며 만해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교 2학년생이던 1962년 3월 국어 첫 시간에 문득 만난 근대시초 1.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수업은 충격의 시간이었다. 국어 선생님을 대신하여 1시간 수업을 대신하였다는 사실은 만해 한용운에 대한 운명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사건이었다. 이후 만해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의 만해기념관을 만들어 내는 단초를 제공받은 시기였다. 만해 한용운은 나에게 하나의 신앙과도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② 대불연 시대

나는 대학생활 중 불교학생회를 만들었고 만해 한용운의 시화전을 개최하면서 선지식들이란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약칭 대불연)의 간부가 되었고 대학생활과 대불연 활동에도 열성이었다. 그 중심에 만해 한용운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만해 한용운 선사 그 용지를 영원의 지표로 삼자라는 책자를 만들어 돌리기도 하였다. 1772년 [한용운전집]이 신구문화사에서 발행되는 과정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한용운 연보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1973년 [한용운전집] 보급의 실무까지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 일을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한용운전집] 보급 운동에 대학생활을 다 바치는 형국이 되었다. 이때 경봉, 석주스님, 효당 최범술, 해오 김관호 선생을 만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행운도 함께한 시기였다.

③ 청진동 시대

1977년부터 만해사상연구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였다. 중심무대가 한용운 전집을 발행한 신구문화사의 한 모퉁이 방에서 청진동 시대를 열었다. 특히 1979년은 만해탄생 100주기가 되던 해였다. 만해탄생 100주기 추모 학술강연회와 [한용운전집] 전6권을 수정 보완하여 증보판을 보급한 일을 가장 특징적인 일로 들 수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한용운사상연구] 발행(1979), [정본 님의 침묵](1979) [조선불교유신론](1980)을 차례로 발행하면서 출판을 통하여 만해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시기였다. 특히 “만해 한용운 관계문헌 연구”를 통하여 만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고 본격적으로 만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시기였다. 일련의 작업으로 만해기념관(1981)의 문을 열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 1981년에 비로소 만해 한용운의 우거였던 성북동 심우장으로 옮겨 본격적인 만해기념관 개관을 준비하였다.

2) 만해기념관 설립(1981-현재)과 운영

① 성북동 시대

1981부터 10월 20일 드디어 성북동 심우장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만해기념관을 열고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심우장은 만해선생을 따르던 안국동 선학원의 벽산 김적음 스

님께서 초당을 지으려고 마련하였던 북장골 송림 중의 52평을 내어 드린 것이 발전하여 심우장을 짓게 되었다. 후학 동지들도 나중에 협찬을 하여 후일 52평의 땅이 더 매수 되어 지금의 100여 평의 땅에 20여 평의 심우장을 짓게 되었다. 총독부 청사를 마주보기 싫어 북향집이 되었다는 일화를 간직한 집이다. 일제시대 조국의 강토가 짓밟히는 뼈아픈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혼을 간직한 유일한 조국의 땅 심우장이었다. 여기 심우란 뜻은 무상 대도를 깨치기 위한 집이란 뜻으로 선생의 일생이 그러한 것처럼 늘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다. 만해의 심우장에는 손수 심은 향나무 한 구루가 만해의 기상을 닮아 늘 푸르게 잘 자라고 있다. 심우장에서 만해는 유마경 원고를 번역하였고, 신문, 소설 잡지에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였고,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언제나 호의를 갖고 대하였으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는 "조금도 실망하지 말게 우주 만유에는 무상의 법칙이 있네. 절대 진리는 순환함이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일세,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사람의 본분을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이 올 것일세." 하면서 자상하게 타이르시던 삶의 체취가 풍기던 심우장이다. 심우장 만해기념관에서 [한용운사상연구 제2집] 발행(1983), [석전시초] 발행(1983), [석전문초] 발행(1984), [한용운시론집] 발행(1984) 등을 통하여 만해 문학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만해기념관의 운영을 개인이 책임진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북동 심우장의 만해기념관 시절은 영광과 좌절을 함께 한 시절이었다. 그 이후 심우장은 서울시 사적 제 7 호로 지정되어 문화유적지가 되었고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는 성북동의 명소가 되었다.

② 남한산성에 응지를 펴다.

1990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내의 만해기념관을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만해기념관 시대를 열었다. 특히 남한산성의 만해기념관은 논자가 사재를 들여 정성껏 설계하여 문을 연 사립 문학 박물관이다. 이제 이 터전에서 본격적인 만해 문학사상을 선양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만해와 더불어 미래를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 갈 수 있는 터전인 것이다. 남한산성의 만해기념관까지 오는 과정이 들을 지나 강을 건너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민족자존의 역사가 숨쉬고 호국 정신의 성지인 남한산성 안에 만해기념관을 꾸민 이유는 만해의 나라사랑의 정신이 남한산성의 주제와 잘 부합하면서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때문이었다.

"많은 국민이 만해기념관에서 님, 침묵, 사랑의 시흔을 불태웠던 만해 한용운의 정신과 일제 강점기 동안 한평생을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삶의 자취를 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에 만해 기념관을 세운 것은 산성 축성에 조선 8도 승려들이 참여하는 등 호국 정신이 서린 성지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받아들여 함은 국민의 도리입니다."라는 신념의 목소리는 남한산성 내에 만해기념관을 세운 큰 뜻이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912-1번지 남한산성 내에 문을 연 만해기념관은 대지 520평, 연건평 120평(지상 2층) 규모로 기획 전시실(60평) 교육관(40평) 자료실(20평)등을 갖추고

있다. 기념관은 전통 한옥의 건축 양식을 현대에 조화시킨 건물이다. 만해에 관한 한 모든 자료가 잘 정리된 만해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독립 정신과 이지와 감정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만해의 님, 사랑, 그리고 침묵의 문학 혼을 접하면서 만해의 정신과 삶의 자취를 우리들의 가슴에 세기고, 느끼게 된다.

만해 한용운은 “좋은 일에 자료가 되는 역경에 싸여 있는 조선의 청년들아 우리는 득의의 행운아일는지 모른다고 격려하고 있다. 성공이나, 실패나 보다는 옳은 일인가, 그 큰 일인가를 먼저 분별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문학의 산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뜰을 나서면서 마음의 어떤 충동의 불길이 솟구침은 우리도 이미 만해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III. 만해기념관의 운영 프로그램

만해기념관의 운영 주체 및 운영 프로그램은 사립 문학관이 관계로 설립자 혼자의 몫이었다. 연간예산 확보 방안 까지를 일인 몇 가지의 역을 혼자 해결하여야 하는 고독한 길이었다. 지나온 세월의 무상함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기념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은 우리 모든 사립 문학관인 들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응어리로 남아 있다. 만해기념관 운영을 하나의 소명감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통절이 느끼고 있다.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23년 동안 만해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만해기념관 운영 프로그램과 전시성과 그리고 연구 성과 까지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사업명	대상	인원	기간(개설시기)	내용(간략한 내용)
만해 학교(10년차)	일반	80명	9월~10월	만해에 관한 단기 학교
만해 시 낭송회	일반	80명	4월~5월	님의 침묵 애송시 낭송회
만해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120명	9월~10월	청소년 백일장
만해 유목 탁본 실기	초등 4~6/중등	40명	5월~10월	탁본 실습
님의 침묵 시화 그리기	초등 4~6/부모님	40명	10월~11월	시화 그리기
구연동화	초등 4~6/부모님	40명	4월~5월	12마당 만해 일대기중에서

2) 전시 성과

개관 이후 특별전 전시 총 횟수	16회	
주요 특별전 개최 분류	12회	
대표적인 전시명과 일시	전시명	개최일시
	님의 침묵 판본 특별기획전	2003년 10월
	만해와 그 사람들 특별기획전	2004년 10월
	침묵의 메아리(광복60주년기획전) 만해와 춘성 특별전	2005년 08월 2005년 10월
도록발간 권수	8권	

3) 연구 성과

연구 성과물 소개	단행본 (11권), 도록발간 (6권)	단행본 : 한용운사상연구1,2,3권, (정분)님의침묵, 푸른 산 빛을 깨치고, 조선불교유신론, 유심 1,2,3권, 석전시초, 석전문초 도록 : 님의 침묵 판본전, 만해 한용운, 만해와 그 사람들, 침묵 의 메아리, 만해 시화집, 만해와 춘성, 만해학교
	논문(35편)	한용운의 시문학정신연구 외 35여 편,
	세미나발표자료(7회)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2006 한국문학관협회)
	영상물제작(6건)	지조의 목소리,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등
해외와 연계된 연구 성과(7건)	시집 님의 침묵 외국어판 번역	
학술적인 세미나, 토론회, 초청강연 등 개최기록	26회	
기타 성과	5회	
이후 연구계획	외국어 번역 작업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과 운영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점을 개인이 설립한 사립 문학관인 연고로 지자체의 도움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만해기념관의 연간 예산과 운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해기념관의 경우 지금까지 투자된 자금으로는 대략적으로 ()억 정도의 기본 자산과 연간 운영비 6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었다.

만해기념관의 2005년도의 결산 결과의 수입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체 경영 사업으로는 입장료 25%, 아트 상품 판매 3%, 도록, 책자판매 5%, 경기문화재단 및 복권 기금 사업 35%, 설립자인 관장의 기본 자산과 외부활동(강연료, 원고료등)과 그리고 대학교수로서의 봉급 등의 수입에 32% 의존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경기문화재단이나, 로또복

권 사업은 일반 경상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인 관계로 업무량만 늘었지 문학관의 재정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 수지의 지출 부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 2400만원, 시설관리 운영비 8백만 원, 기획 특별전 전시회 개최 비용 4800만원 홍보 800만원, 사회교육 700만원, 기타 500만 원 정도의 지출인데 연간 총지출이 1억 정도의 재정 규모였다. 이중에서 전시회 개최 비용 4800만원은 경기문화재단과 로또기금 사업이고, 3천 2백만 원이 자체 경영 수입으로 충당되었으며 나머지 지출 비용은 전부 2천만 원은 관장의 몫이었다. 그래도 2005년은 행복한 한해였다. 로또 기금 사업도 하였고, 경기도 테마박물관 사업도 펼치면서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만해기념관 도록 발간을 하였고 관람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주어서 한층 밝은 내일을 기약한 한해였다. 그리고 기초 단체인 광주시의 경우 문학관 내지 박물관에 관한 업무조차 하여 본 일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줄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 정도의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사회 공공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차 없지만 멀지 않은 시간에 깨어나리라 본다.

만해기념관은 사립 문학관인 관계로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다. 교육관이 있어 상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문학관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순차적으로 반듯이 해결하여야 한다.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휴게실 공간이 부족하다. 좀 더 여유 있는 감상을 하기 위하여 휴게실 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장애자를 위한 시설물 보강도 이제는 고려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주차시설, 화장실 등등이 부족하다 앞으로 점차적인 투자를 늘려가면서 해결하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들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시 당국에서는 안내판 1곳만 세워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문학관 운영의 가장 큰 애로점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 부족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의 많은 조언을 기다리면서 하나의 문학관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완료형의 일은 아니고 영원한 진행형(~ing)인 것 같다. 그 길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갈 뿐이다.

IV. 만해기념관의 살아남기 전략

1. 접근성이 양호한 문학관 만해기념관

만해기념관을 23년 동안 운영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문학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수없이 자문자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길이기엔 그 길을 따라 왔노라고 말 할 뿐이다. 본격적인

문학관 활동이 궤도에 오르자면, 수집·보관·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어지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지만 열정과 정성으로 오늘을 일구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번지 남한산성내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지역을 옮기면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였다. 문학 기념관을 옮기고 다시 세운 이유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때문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는 2차적 욕구지 1차적 욕구는 분명 아니다. 여기서 금강산은 문화일반을 표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욱 적절 할 것이다. 즉 문화는 배가 고프면 사실 어렵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된 뒤의 문화다. 그렇다면 만해기념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위치 선정은 생존의 법칙과 제일 밀접한 관계다. 즉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으면 사립 문학관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은 연간 350만 명이 출입하는 한국 최대 성(城)이 있는 역사 주제공원이요 수도권 최대 자연 생태공원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이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문학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만해기념관을 남한산성에 자리 잡게 하였다. 관람자 수가 꾸준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결과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이루어 내는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하였다고 자부한다. 매년 관람객의 신장 속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가장 비싼 땅에 문학관을 지어야지 변두리 가장 싼 땅에 문학관을 설립하면 실패 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는 만해기념관이다.

2. 지역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된 만해기념관

문학관이 그 지역으로부터 사랑 받기 위하여 우선 주변을 살펴야 될 줄 안다. 주변의 문화시설, 역사 유적, 문화재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남한산성 내의 만해기념관은 많은 장점을 살려내고 있다. 국가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의 성곽, 경기도무형문화재 1호에서부터 6호까지(수어장대, 송열전 침괘정 연무관 현철사, 청량당) 경기도 문화재 자료인(지수당, 장경사) 경기도지정기념물인 (망월사 개원사) 그리고 한창 복원 정비 중인 남한 행궁등 반경 500미터 내에 주변의 문화유산 250여 곳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의 해설을 곁들여 안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탐방객들에 만족감을 심어주는 작업은 강화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축제인 남한산성 문화제가 매년 가을 단풍철에 열리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남한산성 문화제에 적극적 참여와 프로그램 공동기획을 통하여 함께 활성화 되는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남한산성 축제기간 중에는 남한산성의 4계 사진전, 삼학사와 만해 특별기획전, 만해 시 낭송 대회 등을 개최하고, 왕실도자기 엑스포, 붕어 축제, 딸기 축제, 도마도 축제가 지역에서 활성화된 축제의 장에 문학관의 역할 찾기를 통하여 산성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서 인접 문화시설과 공동 홍보 전략을 세우고 티켓 한 장을 사면 주변의 문화유산 및 박물관 몇 곳을 동시에 관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방문자 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만해기념관의 경우 남한산성과 함께하는 역사 강좌 및 삼학사와 만해의

지조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방문객들에게도 만족을 주는 문학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문학관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는 만해기념관

문학관 경영의 효율성 재고하는 문학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없는 사명감과 열정 그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 넘치는 생각과 실천력 등이 문학관 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전문인이 경영을 책임지는 문학관이어야 한다. 문학관의 최고의 자산은 시설이나 내용보다도 전문인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고객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를 면면히 살펴야 된다. 문학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심 성의껏 자료를 해설하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문학 해설사를 동원하여 해설이 있는 문학관이란 인상을 깊게 심어주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 고객 만족 시스템만이 생존의 원칙임을 확신시키는 지름길이다. 한편 방문객의 입장에서 어떤 행사, 어떤 기획이 필요한가를 꾸준히 살펴볼 수 있는 정보의 소통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문학관을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체험형 문학관이 되어야 한다. 체험형 문학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육과 연계한 문학관이 되어야 한다. 만해기념관의 경우 만해에 관한 단기 교육으로 10년째 운영하는 만해학교, 님의 침묵과 나의 애송시 낭송회, 청소년을 위한 만해 청소년 백일장, 만해 유목 탁본 쓰기, 님의 침묵 시 · 화 그리기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체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생 때부터 자주 찾는 문학관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안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때다. 문학관을 운영하다는 사명의식이 우리들의 존재 기반이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V. 맺는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문화시설인 문학관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명감 하나로 오늘까지 지탱하여 온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면 정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학관들을 보아야 한다. 특히 사립문학관들의 생존의 법칙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엔 같을 뿐이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었다. 그곳에서 문학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꾸 우리들을 옳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경기문학 진흥

세미나가 열려 문학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하겠다. 문학관 지원에 관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문학관 진흥 조례를 만들어 문학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학관들이 사회 공공의 문화시설로서 받을 권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문학관을 건립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문학관을 활성화 시키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막힌 곳은 뚫고 부족한 곳은 메우는 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문학관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문학관의 문학유산은 창고(문학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앞에 내가 가져다 놓겠다는 적극적 창조적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와 문학관이 함께 노력하면 성공적인 운영은 담보하여 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황순원 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 건립추진

김 종 희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경희대 교수)

이 발표에서는 먼저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황순원의 작품세계와 문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1953년 발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단편 「소나기」의 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모티브로 한 ‘황순원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의 조성 사유 및 타당성, 조성 규모 및 적합지 등을 현장 적용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려 한다. 이는 문화예술 또는 문학작품의 문화산업적 소통과 실질적 성과의 산출에 이르는 하나의 표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소나기」, 인간 본원의 순수성과 그 소중함

「소나기」는 짧은 단편이면서도 황순원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어쩌면 단편문학에서 그의 문학적 특징과 장점을 가장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도 있겠다.

「소나기」가 실려 있는 단편집 『학』은, 1956년 작가와 가까웠으며 이름 있는 화가 김환기의 장정으로 중앙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1953년에서 1955년 사이에 씌어진 단편 열네 편이 수록되어 있다.

전후의 시대상과 힘겨운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휴머니즘의 온기를 잃지 않고 있는 등장인물들과 마주칠 수 있다. 「소나기」는 청순한 소년과 소녀의, 우리가 차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가 조심스러운, 그 애뜻하고 미묘한 감정적 교류를 잘 끌어담고 있어 이 시기 작품 세계의 극점에 섰다고 해야 옳겠다.

「소나기」는 「학」 「왕모래」 등과 함께 활발한 번역으로 영미 문단에 소개되었으며, 유의상이 번역한 「소나기」는 1959년 영국《Encounter》지의 컨테스트에 입상, 게재되기도 했다.

이 작품의 중심인물은 시골 소년과 윤초시네 증손녀인 서울서 온 소녀이다. 이들은 개울가에서 만나 안면이 생기게 되고 별판 건너 산에까지 갔다가 소나기를 만난다.

몰락해 가는 집안의 병약한 후손인 소녀는 그 소나기로 인해 병이 덜치게 되고, 마침내 물이 불은 도랑물을 업혀서 건너면서 소년의 등에서 물이 옅은 스웨터를 그대로 입혀서 물어 달라 말하고는 죽는다.

그런데 「소나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이야기의 줄거리가 아니다. 간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속도감 있는 묘사 중심의 문체가 우선 작품에 대한 신뢰를 움직일 수 없는 위치로 밀어 올린다. 정확한 단어의 선택과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이 읽는 이에게 먼저 속 깊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는 범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단 한 차례도 글의 문면을 따라가는 이에게, 토속적이면서도 청신한 어조와 분위기 밖으로 나설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기 · 승 · 전 · 결로 잘 짜여진 플롯의 순차적인 진행을 뒤따라가는 일만으로도, 문학이 영혼의 깊은 자리를 두드리는 감동의 매개체임을 실감케 한다.

작은 사건과 사건들, 그것을 감각하고 인식하는 소년과 소녀의 세미한 반응 등 작고 구체적인 부분들의 단단한 서정성과 표현의 완전주의가 이 소설을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떠받치는 힘이 된다.

이미 익히 알려져서 구태여 부언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나, 「소나기」의 결미는 황순원 아니 한국 단편 문학 사상 유례가 드문 탁발한 압권이다.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소년에게 전달하고 소년의 반응 자체를 생략해 버린 여백의 미학이 하루아침에 습득된 기량일 리 없다. 이러한 결미는 앞의 작품들에서도 유사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소나기」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이 내면적으로 본질적으로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손가락 끝을 바늘에 찔리듯 명료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나기」 같은 작품, 황순원 같은 작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 문학의 행복이라 할 수 있겠다.

2. 황순원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 조성

가. 소나기마을 조성 사유 및 타당성

단편소설 「소나기」에 묘사된 마을은 경기북부 지방의 전형적 시골 풍경을 하고 있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겟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소나기」, 부분)

「소나기」는 윤초시네 증손녀인 소녀와 농부 아들인 소년이 며칠 동안 맺은 설익은 사랑의 인연을, 주로 소년의 시각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인용문은 윤초시 손자(소녀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에 와 있다가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내놓게 되어, 양평읍으로 이사를 가게 된 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과 소녀가 만남을 이어온 개울이 있는 그곳은 어느 지방일까라는 질문, 곧 「소나기」의 작중 무대 문제는, 이 인용문 속에서 절로 풀린다. 물론 우리는 답을 지나치게 서둘러 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외경심으로 차분하게 답을 구해보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한다.

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은, 작중에서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행정구역 상 양평과는 다른 도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사한다면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라는 표현보다 “양평으로 이사간다” 또는 “양평군으로 이사간다”라는 표현을 써야 더 실재감이 느껴진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라는 표현은 같은 양평군 내의 어느 면 어느 리에서 양평읍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은 23년 6개월 동안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더불어 서울 근교, 특히 양평군 일원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 소재 취재, 단기 여행, 야유회, 답사, 학생인솔 MT, 낚시 등을 자주 다녔다. 단편 소설 「나무와 돌, 그리고」와 같이 양평 군내 용문산 은행나무 등을 직접적인 소재로 한 작품도 있고, 또 농촌이 배경인 작품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양평군의 자연 경관과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또한 양평군과 황순원의 교육 및 창작의 근거지였던 경희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평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대학이 경희대이며 양 기관의 자매결연(2003. 6. 2)으로 인한 의료, 교육, 예술공연, 약초재배 등 다각적인 사업의 추진이 계획되어 있다. 황순원은 경희대에 재직하면서 이름 있는 많은 문인 제자를 생산하였다. 재직 중 104편의 단편 중 3분의 2와 7편의 장편 중 4편을 집필하였다. 정년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 추대되어, 경희대 교수진의 상징적 인사로 남아 있었다.

작가로서의 황순원은 작품과 인품에 있어 작가정신의 사표로 지칭되는, 우리 문학사에 보기 드문 경우이며 「소나기」, 「학」 등 여러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 범국민적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로 「소나기」는 ‘국민단편’으로 불린다. 그런 까닭으로 한 작가와 작품을 대학과 지방자치체가 공동으로 기리고 문화적 상징으로 계발하는 모델에 있어 사회적 거부감이 전혀 없는 모범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사회사적 수용에 관한 실증적 논리를 잠시 한쪽으로 젖혀두고 황순원과 양평군의 상징적 상관성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굴할 수도 있다. 황순원이 수학하고 젊은 시절을 보낸 평양의 두 읍절을 거꾸로 읽으면 양평이 되며 부인 양정길 여사의 성씨(楊)와 양평의 첫 글자(楊)가 같다. 또한 양평군의 전신인 양근(楊根)군과 지평(砥平)군의 어의가 작가 황순원의 인품 및 작품 세계의 성격적 특성과 여실히 부합한다. 곧 부드러운 버드나무의 뿌리나 솟들 같은 공평성은 작가의 온화하면서도

엄정한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측면이 있다.

소나기마을 조성에 임하는 양평군의 입장에 있어서는, 「소나기」를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군의 문화적 위상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홍보하고, 완공시 연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보통 이효석문학촌의 경우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방문객과 100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비해 양평은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인한 동선의 확보나 황순원 및 「소나기」가 갖는 명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앞 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희대의 입장에 있어서는, 역대 재직 문인 교수 중 가장 상징적 인물인 황순원과 그의 「소나기」를 통한 테마파크 조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위상을 크게 신장할 수 있고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등 세 기능 가운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성과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상징적 배경과 기대효과에 따라 양평군과 경희대는 2003년 6월 2일 자매결연 협정을 맺고,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에 관한 약정과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위원회 정관을 확정하였으며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문화산업적 테마파크 개발의 범례가 된 소나기마을 추진 방침에 있어서는, 양평군 및 경희대가 유족의 의사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기념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양평군의 문화적 성숙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적인 문화명소로 조성해 나가는 동시에, 황순원 문학의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발양하고 이를 계승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성사업의 추진은 양 기관과 유족대표가 참여한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양평군과 경희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양평군의 문화예술인 및 전국적 명성이 있는 문화예술인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의견을 구하는 동시에, 조성 지역의 주민 대표를 동참토록 하여 문화예술계와 지역 기층사회가 연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을'이 되도록 했다.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먼저 군비로 시작하되, 도 예산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데 양평군과 경희대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소나기마을 추진 및 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소설 「소나기」속의 자연적 배경을 현실적으로 살려내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소나기마을을 크게 두 형상으로 구분, 하나는 자연적 소나기마을을 재현하여 그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마치 소설 작품 속을 한 바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동선을 구성하고, 다른 하나는 아주 실용적인 문학관과 부대시설을 구비, 동영상 상영, 작가 유품 및 작품 전시, 세미나실, 작가실, 강당 역할을 겸한 실내 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을 두도록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 내에 주기적인 문학 · 문화 모임이나 공연을 유치하되 동절기에도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대외 홍보와 방문객 확보를 유도하며, 이 마을이 단순한 문화 관광 방문지로 그치지 않고 전국의 초·중·고 학생, 대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뜻깊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승화되어 지속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마을의 조성 후에도 앞 향의 내용을 발전시켜 전국적인 문화사업들의 실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 소나기마을 조성 규모 및 적합지

황순원의 「소나기」는 1953년 『신문학』에 발표된 뒤 중학교 교과서에 오랜 동안 수록됨으로써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그 작품 내용을 알고 있다. 특히 「소나기」는 황순원의 많은 소설 중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의 하나로서 그 속에 양평읍이란 지명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 속의 주인공 소녀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양평읍에 인접한 양평군의 한 지역 마을로 추정된다.

작품의 중심 배경이 되는 개울과 산마루 풍경은 물론 개울의 징검다리도 50년대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모습 그대로이다. 조약돌, 비단조개 등은 물론 갈꽃(갈대), 억새풀, 칩꽃, 들국화(개미취), 쭉부쟁이, 구절초, 산국), 싸리꽃, 마타리, 도라지꽃 등 우리나라 중부 지방 산골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만 해도 양평군이 소나기마을 조성 조건으로 최적지라고 생각된다. 논의 메뚜기, 참외와 무가 심어져 있는 밭의 원두막이 있는 풍경이나 수숫단과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는 들판의 풍경은 현재 양평군 촌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소설 「소나기」 속의 마을은 개울이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고 윤초시네가 사는 서당골 마을이 울려다보이는 지형을 하고 있다. 서당골 앞 산마루에서 바라보면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는” 매우 전형적인 농촌 마을, 이 정도면 가히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그리워하고 있는 향토색 짙은 고향의 원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작가의 실제 고향을 우리 문학의 고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소나기마을 추진 담당자들로서는 양평을, 특별히 양평이라는 지명을 뜻깊게 작중에 새긴 「소나기」를 앞세워 작가의 이름을 빛낼 공간 환경으로 삼았으면 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나기」의 무대가 되는 양평군은 남부에서 북서로 흐르는 남한강과 북부에서 남양주시와의 경계를 따라 남으로 흐르는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청정 수자원을 가진 지역이다. 무엇보다 서울에 가장 가까이 인접함으로써 문화관광 지로서의 접근성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강의 지류인 수입천, 문호천, 그리고 남한강의 지류인 흑천과 신내개울 유역에 약간의 평지가 펼쳐져 우리나라 전통 농가의 취락지는 물론 도시인들이 꿈꾸는 전원생활에도 적격지이다.

양평군은 경기도 동쪽 끝에 있는 군으로서 북쪽은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서쪽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광주시, 남쪽은 여주군, 동쪽은 강원도 횡성군과 원주시와 접한 1읍 11면으로 행정구분이 되고 있다. 양평읍은 용문면, 양동면, 청운면, 옥천면, 개군면,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단월면, 지제면, 서종면에 둘러싸여 있으며 작품 속의 주인공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은 이들 11개 면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교통망을 살펴보면 철로 중앙선이 양평군을 동서로 횡단하고 도로는 서울-강릉간 국도가 동해안의 양양, 주문진, 강릉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여주-포천간 국도가 여주, 양평, 포천, 전곡, 파주 등을 연결하며 남양주시, 서울, 성남시, 이천시를 지나는 국도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수운은 서부 경계를 따라 북한강이 흐르고 남부에는 남한강이 지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발달된 입지조건을 보이고 있다.

양평군 관내의 문화공간으로는 바탕골예술관, 갤러리아지오, 용문갤러리, 드라이브인 양평극장, 양평미술관 등이 있고, 문화재는 보물 1점(용문사), 천연기념물 1점(용문산 은행나무, 수령 1,100년) 등 2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유형문화재 6점, 기념물 7점, 민속자료 2점, 문화재자료 6점 등 21점의 도지정 문화재가 있다.

소나기마을의 조성 외관과 규모에 있어서는 「소나기」의 배경과 흡사한 50년대 향토성 짙은 농촌 마을 전체를 조성 대상으로 하고 공원 개념의 '소나기마을'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 그 내부에 황순원 문학기념관을 두고 유품 전시관, 자료 보관실, 세미나실, 동영상 관람실, 관리사무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 내에는 소설 「소나기」의 체험 학습 시설을 다각적으로 설비하기로 했다.

조성 적합지 검토의 결론이 될 양평군의 어떤 마을을 '소나기마을'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먼저 양평군의 새로운 문화환경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촌락으로서 자연과 문학,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되도록 「소나기」에 묘사된 마을 풍경에 어울리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어야 한다는 데 추진 담당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마을 내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너던 개울이 마을 어느 곳엔가 있어야 하며, 소나기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개울에서 애인을 업고 건너든가 예쁜 조약돌 줍기 내기를 하는 등 작품 내용을 체험하며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품에 나오는 허수아비를 구경하거나, 무와 참외를 심을 수 있는 개울가의 밭에서 직접 참외를 가꾸고 따먹기, 원두막에서 휴식 취하기, 무공해 논에서 메뚜기 잡기, 호두나무 밭에서 호두 따기 등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 좋을 것이고, 마을에 인가가 십여 채 이상 있어 주민들이 소나기마을 시설물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행사 때마다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조성 규모 및 적합지에 대한 논의를 좇아, 결과적으로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를 '황순원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의 조성지로 선정하고, 2006년 6월 현재 기본 설계를 거쳐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2006년도 하반기 중에 기공이

이루어지고 대략 2년여의 시기를 경과하여 소나기마을이 완공되면, 이 국내에 유례가 없는 테마파크는 뛰어난 문학작품이 그 서정적인 내용과 더불어 문화산업의 현장으로 발전적으로 변용되는 하나의 수범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3. 마무리

‘황순원 문학촌-양평 소나기마을’의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는 양평군 4인, 경희대 4인, 유족대표 1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 양평군과 경희대의 담당 및 전문 인력을 배경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건립이 완료된 후에는 이 위원회가 자동적으로 관리운영위원회로 전환되도록 그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금년 하반기에 시공하여 2년여의 계획으로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사비는 대략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 구성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각기 일정한 비율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진행을 맡은 양평군과 마을의 컨텐츠 구성을 맡은 경희대의 관학 협력, 그리고 지난해까지 제2차를 치른 황순원문학제에 공동주최로 참여한 중앙일보와의 언론 협력 등 유관기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의 조성은, 소정의 부지에 문학관 건물을 하나 세우는 단편적 방식이 아니라 부지 일대를 문학 마을로 조성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실제의 마을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는 공간 개념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건립 이후의 구체적 운영 방안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건에 해당한다.

그동안 소나기마을의 건립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양평군 그리고 경기도에 추진위원회에서는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이 마을이 건립이 완성되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산으로 그 성과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후원과 편달을 보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화성시 노작 문학관 건립 계획

심재만 (화성시 문화홍보과장)

I. 들어가는 말

홍사용¹⁾의 본관은 남양, 호는 노작(露雀)이다. 1900년 5월 17일(陰曆)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아버지 대한제국 통정대부 육군헌병 부위 철유(通政大夫 陸軍憲兵 副尉 哲裕)와 어머니 능성 구씨(綾城 具氏)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경헌공(景憲公) 홍섬²⁾(洪暹)의 13대손이다. 아버지 철유(哲裕)가 무관학교 1기생 합격하여 서울 재동으로 이사하였다. 1907년 군대해산으로 생부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492번지로 낙향하여 한학(漢學)을 수학하였다. 1908년 백부 승유(升裕)의 양자로 결정되어 입양되었다. 1912년 13세의 나이로 2년 연상의 원주원씨 효순(原州元氏 孝順)과 결혼하였다.

1916년 휘문의숙에 입학하여 서울 의주로에서 하숙생활을 하였다. 1918년 월탄 박종화와 정백(鄭栢) 등과 함께 동인지 성격의 유인물 「피는꽃」을 펴냈다. 1919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곧이어 발발한 3.1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되었다. 6월에 낙향하여 정백과 고향에서 수필 '청산백운'(靑山白雲)을 썼다. 1920년 서울에서 서광사(曙光社)에 관여, '문우'(文友)를 창간하였고, 1921년 '문화사'를 설립, 문예지 『백조』와 사상지 『흑조』의 창간을 준비하였다.

1922년 백조 1호(1월), 2호(5월)를 간행하고, 이듬해 동아일보 1월 1일자에 수필 「노래는 회색(灰色), 나는 또 울다」를 발표하였다. 1923년 <토월회> 1회 공연에 자금을 지원하

1) 홍사용(洪思容, 1900. 5. 17~1947. 1. 7)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영희, 『젊은 심볼리즘의 部隊』, 조선일보, 1933.

_____, 『백조 화려했던 시대』, 조선일보, 1933.

김팔봉, 「토월회와 홍사용」, 『현대문학』, 1963.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시 연구』, 일지사, 1980.

서연호, 『일제하의 회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1.

김학동, 『洪思容 全集』, 새문사, 1985.

임기중, 「청구가곡과 홍사용」, 『국어국문학』102, 1989.

홍신선, 『한국시의 논리』, 동학사, 1994.

김미도, 『한국 근대극의 재조명』, 현대미학사, 1995.

유민영, 『한국현대회곡사』, 새미, 1997.

김중태, 「洪思容 戯曲 小考」, 『노작홍사용 탄생100주년 기념문학제』, 2000.

2) 홍섬(洪暹, 1504~1585) : 조선 중종·명종·선조 때의 문신. 호자로 자는 퇴지(退之) 호는 인재(忍齋), 본관은 남양이며, 영의정 언필(彦弼)의 아들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였고, 『백조』 3호를 발행(9월)하였다. 1924년 <토월회> 3회 공연 때는 문예부장을 맡았으며, 1925년 『개벽』 61호에 소설 「봉화(烽火)가 켜질 때에」를 발표하였다.

1939년 『김옥균전』에 대한 검열로 거주지 제한을 받고 있을 때 장남 규선(奎善)의 결혼식 참석이 불가능할 때 춘원 이광수의 도움으로 참석하였다. 이 사건으로 절필(切筆)하였으며, 1940년부터 방랑생활을 시작하여 강경, 전주 등지에서 교편, 사찰순례 및 불경 연구 등을 하였다고 전한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근국 청년단’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47년 1월 폐환(肺患)으로 사망하였다.³⁾

묘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불당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인 원주 원씨와 합장묘이다. 당초 아무런 석물 의장을 구비하지 않았다가 1984년 5월 26일 ‘시비(詩碑)-나는 왕이로소이다’ 건립을 계기로 8각형의 호석과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묘표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1991년에는 ‘우리문학기림회’에서 묘소 입구에 안내석을 세웠으며, 1997년 9월 20일 SBS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현대문학사적지’로 선정되어 석우리 복지회관 앞에서 표징제막식을 가졌다.

2002년에는 경기도 화성시와 후손의 후원으로 ‘노작문학상’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일에는 노작의 묘소가 화성시 향토유적 제13호로 지정되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이장될 위기에 처했으나 화성시와 후손, 문인협회, 사업시행자측 등의 노력으로 홍사용 문학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II. 문학관 건립취지

노작 홍사용은 3.1운동 이후 민족적 울분과 조국독립에 대한 정열과 식민지 정책에 반항하는 항일투쟁정신이 계기가 되어 문학에 더욱 심취하였다. 당시 일제의 강압 하에 붓을 쥐은 문인이 많았으나 노작은 일제에 조금도 굴하지 않은 민족정신을 표현하였다.

노작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은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노작 자신의 회고적인 기록과 그와 가까웠던 박종화(朴鍾和), 박영희(朴英熙) 등의 자료들을 근거로 할 때 노작의 인간적인 면모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곧, 선비기질의 면모와 과묵 침묵한 태도,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이 그것이다. 먼저 노작의 울골은 선비로서의 면모는 그가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육당이나 춘원과 달리 한 편이 부일(附日)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이화여전의 출강(出講)권유를 뿌리치고 한차례 인사로 대신했던 일이라든지 30대 이후 시작된 방랑과 한의원을 하면서 일제시대를 끝까지 견디어 낸 점 등은 모두 이 같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기적 사실이다.⁴⁾

3) 마포구 공덕동 장남집에서 사망.

4) 洪申善, 「洪思容의 人間과 文學」, 『노작홍사용 탄생100주년 기념문학제』, 2000, 10쪽.

그동안 후손들과 많은 지인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노작 문학상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의 사상적 자취를 모두 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시의 대표적 시인이며 항일운동가인 노작 홍사용의 업적을 기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서정의 공간을 담기위한 공간으로 노작거리와 노작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우리시가 문학촌으로 재발견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Ⅲ. 건립추진주체 및 추진과정

노작거리와 노작기념관은 화성시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동탄지구 제6호 근린공원 예정부지 216,230평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문인협회와 문중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노작거리와 노작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를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가 주체, 노작홍사용 문학기념사업회 주관, 화성시와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여 개최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노작문학상을 제정하여 올해 6회를 맞고 있다.

한국문학관협회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협회회원의 문학관 건립 주체는 지자체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에서 조사된 협회소속 21개 문학관 중에 지자체가 대표로 있는 문학관은 9개 소로 42.8%에 달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문학관이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문학관을 건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문화인물을 발굴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많은 수의 문학관이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인이나 문중에서 문학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지자체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시민과의 공감대를 통하여 참다운 문학관 건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시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판단되며 시(市)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부지마련과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시군의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건립한 문학관을 모델로 삼아 우리시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화성시는 2005년 약 200평 규모의 노작문학관 건립 계획으로 1층에는 노작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을, 2층에는 기획테마전시실, 북카페, 세미나실 등을 갖추어 예정으로 기획하고 있다. 소요예산액은 시비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한국문학관 협회소속 문학관 현황

이름	대표	주소	기타
경남문학관	관장 정목일	경남 진해시 태백동 산98-1	
구상문학관	대표 칠곡군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5-84	
김유정문학촌	관장 전상국	강원 춘천시 신동면 증3리 868-1	
만해기념관	관장 전보삼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문학의집,서울	대표 김후란	서울 중구 예장동 2-20	
미당시문학관	대표 고창군수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231	관장 박우영
박화성문학기념관	대표 목포시장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	관장 김평규
백담사만해마을	대표 신경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36-5	운영 이상국
아리랑문학관	대표 김제시장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3	
영인문학관	대표 강인숙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4-27	
이주홍문학관	대표 강남주	부산 동래구 온천1동 435-24	관장 정영일
이효석문학관	대표 평창군수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	
조태일시문학기념관	대표 곡성군수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799	
채만식문학관	대표 군산시장	전남 군산시 내흥동 285	
청마문학관	대표 통영시장	경남 통영시 정량동 863-1	관장 박병규
추리문학관	대표 김성중	부산 해운대구 중2동 1483-6	
토지문화관	대표 박경리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570	관장 김영주
편운문학관	대표 조진형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산 337	관장 김용정
한국가사문학관	대표 담양군수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9	관장 한상규
한국문인인장박물관	대표 이재인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256-2	
한국현대문학관	대표 전숙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관장 김원일

IV.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화성시는 2007년 노작문학관 건립을 목표로 화성시 동탄지구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원 부지 내에 노작 거리와 노작문학관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당초 한국토지공사에 노작문학관 건립을 요청하였으나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비가 과다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화성시는 동탄지구 공원부지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노작문학관 건립을 요청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가 무산되어도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성시는 한국토지공사의 지원이 불가시 2007년 본예산에 약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는 동탄신도시 중앙근린공원 내에 확보할 예정으로, 건축비는 전액 시

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노작문학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향후 추진계획

계획	건축주체	비용부담	기타
1안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화성시	
2안	화성시	화성시	본예산 20억원 확보

예산이 확보되면 문인협회와 문중,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유물 및 자료들을 확보할 예정이다. 후손들이 발로 뛰면서 확보한 자료들과 문인들의 협조를 얻어 기념관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할 것이다.

현재 노작의 유품들을 후손이 보관하고 있으며, 문학관이 건립되면 사진자료 및 친필 유품들을 기증받아 전시하여 노작의 생애와 인간적인 면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작 홍사용 공원 조성 계획도는 아래와 같다.

<노작 홍사용공원 조성계획도>



V. 운영 및 활용방안

노작문학관과 노작거리가 완공되면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한국문인협회 화성지부에 운영을 대행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상비 조달은 화성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각종 프로그램 개설 및 활용방안은 문인협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문인협회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적 문학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노작의 문학 작품 이외에 화성시 문인들의 작품과 문학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노작과 관련한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기획하여 문화시민의 긍지를 갖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천상시인 ‘千祥炳 문학관’ 建立 計劃

김 인 속 (의정부시 문화예술담당)

建立趣旨(背景)

이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정부에서 보냈던 20세기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 천상병 시인의 맑디 맑은 삶을 기리고자 천시인의 족적이 남은 의정부에 문학관을 건립하여 그 문학적 가치가 높은 각종 시집과 천시인의 유품 등을 다수 전시·홍보함은 물론 후세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

※ 建立敷地에 대한 實務部署 意見

- 천상병시인의 생가였던 장암동 전철기치창 주변은 부지확보가 불가능하며, 민락2택지 개발지구내 계획된 문화복지 시설내 건립이 타당함
- 예정지 좌우측에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 맞은편에 영어마을이 위치예정이며, 천시인이 문헌 산곡동 공설묘지와 의 접근성·활용성이 용이하고 특히 송산사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도 가능함.

□ 建立概要

- 대지면적 : 250평
- 건물연면적 : 연건평 180평의 지상 2층 건물
 - 지상 1층 : 전시실(유품 및 시인관련 서적 등)
 - 지상 2층 : 세미나실, 열람실, 「歸天」카페 운영
- 잔여 대지 활용방안 및 고려사항
 - 천시인의 생가 [현재, 충남 태안군 고남면 중장5리 대야도에 거주하는 모종인(53)씨가 ‘천상병 문학관’ 운영] 를 문학관 옆으로 옮기는 방안과
 - 조경공사시 인근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공동활용하는 방안 강구

□ 總事業費 推算

(단위 : 백만원)

구분 \ 항목	계	부지 ¹⁾ 매입비	건축비 (내부전시 공사포함)	실시설계· 감리용역비	부대비
계	1,949	500	1,260	126	63
산출기초		평당 2백만원	평당 7백만원	건축비의 10%	건축비의 5%

註 1) 문학관 부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로 상정하여야 토지매입비 최소화, 위 부지 매입비는 최근 금오지구 조성원가를 반영

□ 財源 調達 및 管理方案

- 천상병시인 기념사업회와 연계한 사업추진 및 관리
- 2008년 본예산에 부지매입 및 건립비 계상
 - ※ 총사업비의 70% 확보된 사업에 한해 30% 국비 지원 요청

□ 向後 推進計劃

- 실시계획 승인 : 2006. 10월중
 - ※ 사업시행 가능 : 2006. 10월 이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6. 10월중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07. 7월중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2007. 10월중
- 문학관 설계 현상공모 및 선정 : 2008. 2월 ~ 6월
- " 착공 : 2008. 9월
- " 준공 : 2009. 6월
 - ※ 택지지구내 아파트입주 : 2009. 12월

□ 期待效果

- 문화예술인의 연구 및 창작 지원공간이면서 문화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문학교육장으로 활용
- 송산사지, 신숙주묘 등 인근 문화 유적지와 연계 관광할 수 있어 우리 시를 특화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육성 가능.

□ 參考事項

【 천상병 예술제 개최 현황 】

- 시 기 : 매년 4월(천시인 기일)
- ※ 올해로 3회째 개최(2006. 4. 29)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 내 용 : 연극(소풍) 및 백일장, 시낭송회, 음악회 등
- 주 관 : 천상병 시인 기념사업회

【 천상병 시인 기념사업회 】

- 성 격
 - 천시인의 미망인 목순옥(68세)씨가 회장으로 있고 생전에 천상병 시인과 가깝게 지낸 작가 이외수 등 50여명의 문인들로 구성된 추모단체
- 활 동
 - 전국에서 개최되는 천시인 관련 각종 축제 주관
 - 현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귀천’ 카페를 운영하는 미망인 목여사는 한쪽 편에 사놓은 13평짜리 한옥을 개조해 ‘천상병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유품과 사진, 시비 등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으나 자금이 여의치 못해 개관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

MEMO

[2부 세미나]

지역의 문학활성화와 문학관

▣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박상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화예술원 원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에 대한 토론문

전상국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 총장)

▣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문학관의 전망

이덕규 (시인, 화성문화원 이사)

▣ 지역문학관은 어떤 토양 위에 건립되는가

표신중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¹⁾

박 상 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 원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1. 들어가며

1-1. 문학관 정책 연구의 배경

- <문학의 위기>가 도래했지만, 대중들은 무관심하다.
 - 문학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속성, 즉 삶과 정신의 아름다운 서사(敍事)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양식들이 출현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문학의 지위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위기>에 대해 대중들은 무관심하다.

- 문학의 성찰의 대상, 즉 세계와 인간이 변했으므로, 문학정책도 변해야 한다.
 - 세계가 인간을, 또 인간이 세계를 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창작자인 문학인, 매개자인 문예지사와 문학 출판사와 도서관, 그리고 향수자인 국민(독자) 등 기본적인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그간의 문학 정책도 변해야 한다.

- 독자들의 책 읽는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 전국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단 1권의 책(전공서적과 잡지 제외)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65%는 1년에 10권 이하, 즉 한 달에 1권도 채 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의 질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해 충청대의 경우 무협 판타지 소설 2편이 각각 최다 대출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권 가운데 무협 판타지 소설이 7권이나 됐다. (문화일보 2006. 4. 22)
 -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 TV

1) 이 발제문은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박상언 외, 경기문화재단, 2006.6월)를 발췌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인용 논문과 출전에 대하여는 생략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이 발제문 전체에 두루 적용될 것이며, 이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에 관하여는 본 연구서를 참조하라.

관람, 인터넷 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쏟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문화일보 2006. 4. 22)

- 훌륭한 문학과 문학 책을 많이 나오게 하고, 또 이를 읽게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문학 정책의 최일선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세상은 이미 크게 변해 있고 또 계속 변해갈 것이기에, 우리는 문학 정책이 책을 매개로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위의 독서 관련 통계들은 그 작은 한 반증일 뿐이다.

1-2. 문학관 정책 연구의 목적

- 첫째, 문학 정책의 새로운 한 틀거리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 1970년대 이후의 지방문화원, 1980~1990년대 이후의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문화의 집 건립 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에 이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관 건립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1997년, 1998년, 2000년, 2001년에 각 1곳씩, 2002년 4곳, 2003년 3곳, 2004년 3곳, 2005년 6곳, 2006년 6곳 지원) 그러나 이렇게 문학관 건립 정책이 꾸준히 펼쳐지고 있는 속에서도 문학관에 대한 관점의 혼선과 철학의 부족은 여실히 드러나고 만다. 문학관 관련 법 제도의 미비가 그것인데, 먼저 이를 지적하고 문학 정책의 새로운 한 틀거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문학관의 의미화(意味化) 정립을 위해서다.
 -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학 정책 전개를 위한 한 수단이자 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학 자체에도 크게 기여하는 살아 있는 문학 저수지(貯水池)로서의 문학관의 의의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문학관 지원 정책 당국자와 문학관 운영자·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즉 문학관의 의미화 작업이 필요하다.
- 셋째, 문화운동의 하나로 문학관 건립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 문학 장르의 거의 유일한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학관을 짓는 일이 문화계, 또는 문학계의 문화운동 중 하나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각성과, 예로부터 특히 많은 문학적 자산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경기지역 문학인들과 문인단체들이 그 맨 앞 한 가운데에 서야 한다는 각성이 요구된다.
- 넷째, 문학관 운동(건립/운영)을 문학의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해 가기 위해서다.
 - 디지털 혁명, 주 5일 근무제 등 여러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국민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경험할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 위하여 문학관의 건립과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문학의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해 갈 필요가 있다.

2. 문학관의 역사와 개념

2-1. 지역문학관의 일차적 의미

-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은 사실상 문학이다. 『2005년 문예연감』을 보면 2004년에 서울에서 발행된 문학잡지의 수가 154권인데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체 지방에서는 50권이 발행되었다. 즉 서울에서 76%가 발행된 것이다. 특히 시상식을 포함한 각종 문학행사는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행되고 있다.
- 정보통신의 시대가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문학의 대중적 확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단 구조, 문인 조직, 문학인 단체, 출판사 등을 따져볼 때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에 세워져 있거나 세워질 예정인 지역문학관의 의미는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의 문학이라고 하여 소외지대나 변방으로 치부할 수 없다. 지방 어느 대도시 할 것 없이 문학 계간지가 한두 종씩은 나오고 있고, 문인협회나 작가회의 지부의 기관지와 동인지의 수는 실로 엄청나다. 재정적으로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지역마다 문학 향유층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문학 애호가들과 문학가 지망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문학관의 의미는 더욱 새로울 수밖에 없다.
- 문학관과 문학기념관은 그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문학관’이 작가와 시인 및 문학 전반에 걸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문학기념관’은 특수한 지역에서 어느 한 작가·시인의 생애와 그 작품의 가치를 기리며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문학관이 갖는 본래의 기능 면에서 본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럼, 문학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2. 문학관의 역사와 개념

2-2-1. 문학관의 역사

-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관은 1992년 부산에서 문을 연 추리문학관이다. 일본의 문학관 역사는 그보다 30년 앞선 1962년에 일본근대문학관이 설립됨으로써 시작되며, 프랑스의 경우 빅토르위고박물관이 세워진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에서 문학관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윤학로·김점석은 도미니크 페티 Dominique Péty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1) 18세기 중반부터 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과, 2)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히 예술가들의 사생활을 통해 작품세계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음과, 3) 작가의 삶과 작품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읽어내고자 한 영향을 든다. 이렇게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 문학관 역사를 더듬어보면 다음과 같다.
- 20세기에 들어와서 문학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일 먼저 문제시되었던 것은 ‘문학관’ 자체라기보다는 ‘문학을 전시한다’는 문제였다. 전시라는 행위는 박물관과 함께 19세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확장된 형태로서의 <만국박람회>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각지로 널리 퍼져 나가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만국박람회는 모든 인간 활동의 산물을 전시해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학은 이 축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었다. 몇 년 후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총책임자였던 알프레드 피카르가 만국박람회의 결산 보고서에서 ‘문학은 만국박람회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될 수도 없다’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 그럼에도, 1900년 만국박람회 이후 문학계 내부에서 문학과 전시예술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성과는 1920년대에 열린 몇 차례의 초기 문학 전시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초의 의미 있는 문학 전시회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은 1920년 그르노블의 스탕달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의 목표는 1) 작가에 대한 연구를 돕기 위해 작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 2) 작가를 둘러싼 환경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상당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문학관과 문학 전시회가 지향할 방향을 보여주게 되었다.
- 문학과 전시예술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틀이 제시된 것은 1937년의 파리 만국박람회에 이르러서였다. 1936년에 수립된 인민전선의 좌파정부는 문화의 대중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프랑스 문화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는 문화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 문학을 전시예술과 결합한 1937년의 만국박람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문학박물관 Musée de la littérature’이라는 이름의 문학 전시회가 최초로 박람회의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다.
- ‘문학박물관’은 1937년 만국박람회가 거둔 가장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았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도 만만치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문학이라는 예술을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것이었다. 이 논쟁에서 드러나는 '문학박물관'의 첫 번째 성과는 문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그 방식은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가 아니라 '대중'의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성과는 '문학 창작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독자, 혹은 대중들은 문학 창작의 최종 단계인 책을 통해서만 문학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 '문학박물관'은 독자들이 문학 창작이라는 내밀한 작업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이후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프랑스 문학관은 1937년 박람회를 밑받침했던 중심사상인 '문학 창작 과정'에 접근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관은 이름 그대로 문학 분야에 국한된 활동을 수행했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학관은 지역민간단체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학관의 숫자는 시대에 따라 큰 기복 없이 꾸준히 늘어났다. 위대한 작가의 집을 찾아 그에 대한 '경배'를 표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는 정도였던 이 시기의 문학관들은, 몇 가지 소장품을 유리 상자 속에 넣어두는 고전적인 전시 형식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 프랑스에서 문학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이 모색되었던 것은 사회당이 집권했던 1981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문학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인민전선 정부 이후 오랜만에 다시 권력을 장악한 프랑스 좌파는 대중들을 위한 문화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회당 정부의 정책은 대형 문화시설의 대규모 보수 및 설립 사업을 골자로 하는 '대역사 Grands Travaux' 정책과 문화행정 분야의 지방분권화 Décentralisation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 '대역사 계획'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문화사업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박물관과 전시 예술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박물관 분야의 전반적인 성장과 박물관 관람객의 급격한 증가는 문학관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 기존의 문학관들도 이 시기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벌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1981년 사회당의 집권과 더불어 제정된 지방분권화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인력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육성에 적극적으로 나

서게 된 지방정부들은 문학관이 가지는 두 가지 장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 번째는 유명작가와 그 작품이 지역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이며, 두 번째는 지역관광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문학관의 가능성이다.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 거주했던 작가들의 집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일이었다. 오랜 중앙집권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학관은 지역 정체성 확립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의 언어로 그 지역의 사람들과 풍경에 대해 이야기한 문학작품이야말로 지역 정체성의 가장 좋은 뼈대였기 때문이다.

-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문학관에 대한 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 Jack Lang 은 예술가, 작가, 유명인사의 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게 하여 문학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와 유명인사들의 고택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으며, 이어 1996년에 의뢰한 또 다른 보고서는 문학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학관들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두 번째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협회 조직 건립'은 1998년 <프랑스문학관협회>의 결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협회는 현재 프랑스 문학관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문학관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2-2. 문학관의 개념

-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뜻은 '작가(=문학가)의 삶과 창작의 기억과 자취들을 간직하는 곳'이다. 한 작가가 태어났거나 오래도록 또는 일정 기간 살았던 곳에, 그의 작품 활동 중의 유·무형 흔적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은 작가의 흔적이 전혀 다른 곳에 존재했을지라도 이를 보존하고 간직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 별도의 종합적인 시설(예를 들면, 한국현대문학관, 일본근대문학관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문학 창작 집필실(예를 들면, 백담사만해마을, 토지문화관)도 문학관 범주에 넣고 있다.²⁾
- 우리나라에서 흔히 '문학관'이라 부르는 시설을 프랑스에서는 '작가의 집 Maison d'écrivain'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미셸 플로 Michel Melot 는 1996년에 문화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작가의 집은 역사적 건물이나 박물관일 수도 있고 도서관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중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2) 이는 작가들에게 창작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발전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알퐁스 도데 문학관이 한 예이다.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문학관이라는 문화시설을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문학관협회가 <작가의 집과 문학유산 협회 Fédération Nationale des Maisons d'écrivains et des littéraires> 라는 명칭을 선택한 것은 '집'에 포함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문학유산'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³⁾

- 이제 점점 많은 수의 문학관들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순수 문학 활동보다는 문화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프랑스 아라공문학관 관장인 베르나르 바쇠르는 최근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서 문학관을 '문학과 독서, 책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촉의 욕구를 출현시키고 신장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대중들에게 열린 모든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쥘 베른 Jules Verne 문학관장 장 폴 드키스는 '보다 발전된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2세대 문학관'을 주장하며,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정의하고 구분 짓던 시기는 지나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문학관은 전시·관람을 기본적인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박물관이다. 하지만 그것은 관람객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철저한 보안장치 속에 감상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박물관과는 전혀 다르다. 문학박물관은 그 소장품의 성격상 애초부터 대중의 참여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 점에서 문학관은 단순히 문화와의 '접촉'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참여'를 태생 조건으로 하는 문화기관이다. 또한 문학관을 박물관으로 볼 것인가, 도서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유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다.

2-3. 우리나라 지역문학관의 운영 실태

2-3-1. 지역문학관 현황

【 운영 중 】

- 1992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문학관은 2006년 5월 1일 현재,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서울에 5개, 부산에 2개, 경기도에 2개, 강원도에 5개, 충청도에 4개, 전라도에 8개, 경상도에 7개 등 총 33개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는 고루 분포해 있는 편이지만 인구가 과밀한 경기도 지역에 2개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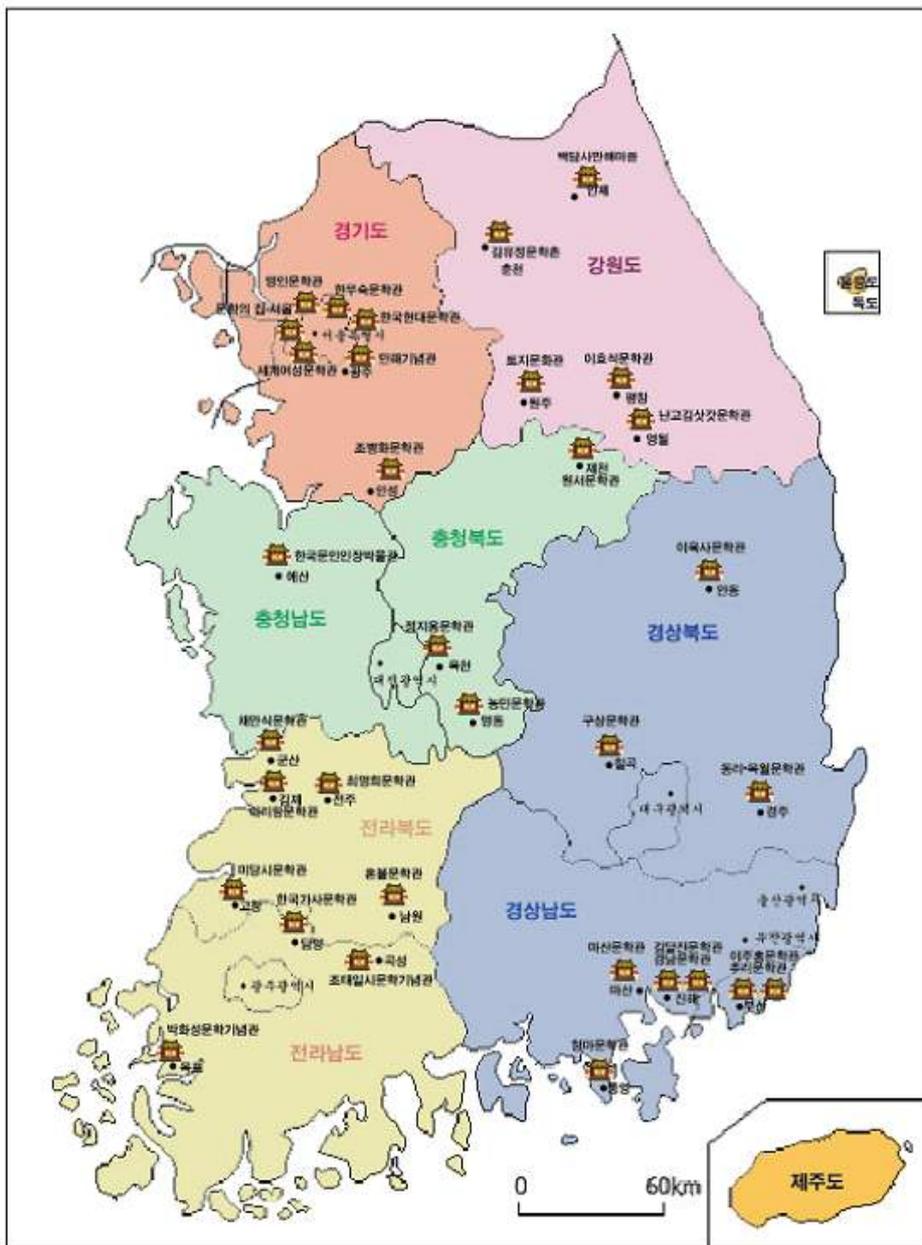
3) 실제 프랑스문학관협회 홈페이지에는 2004년 6월 현재 288군데 문학관이 올라 있는데, 288군데 모두 엄밀한 의미의 문학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표 1> 문학관의 지역별 현황

(2006. 5. 1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33	5	2	-	-	-	-	-	2	5	4	8	7	-



<그림 1> 문학관의 지역별 분포도 (2006. 5. 1 현재)

○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역문학관의 연도별 개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개관 연도별 문학관 현황 (2006. 5. 1 현재)

연 도	문 학 관 명	개 소
1992	추리문학관	1
1993	조병화문학관 / 한무숙문학관	2
1994	-	0
1995	박화성문학기념관	1
1996	-	0
1997	한국현대문학관	1
1998	만해기념관	1
1999	토지문화관	1
2000	세계여성문학관 / 청마문학관 / 한국가사문학관	3
2001	경남문학관 / 미당시문학관 / 영인문학관 /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 채만식문학관 / 한국문인인장박물관	6
2002	구상문학관 / 김유정문학촌 / 이주홍문학관 / 이효석문학관	4
2003	난고김삿갓문학관 / 백담사만해마을 / 아리랑문학관 / 원서문학관 / 조태일시문학기념관	5
2004	이육사문학관 / 혼불문학관	2
2005	김달진문학관 / 농민문학기념관 / 마산문학관 / 정지용문학관	4
2006	동리·목월문학관 / 최명희문학관	2
	1992 ~ 2006년도	33

○ 한편 각 지역문학관의 대표와 관장, 소유와 운영 주체 등 개별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문학관 개요 : 운영 중 4) (2006. 5. 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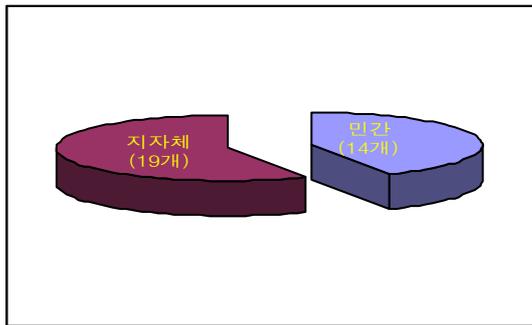
[경기도] (2)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광주	만해기념관 www.manhae.or.kr	1998	- / 전보삼	개인 /개인	박물관협회 회원관
안성	조병화문학관 www.poetcho.com	1993	조진형 /김용정	개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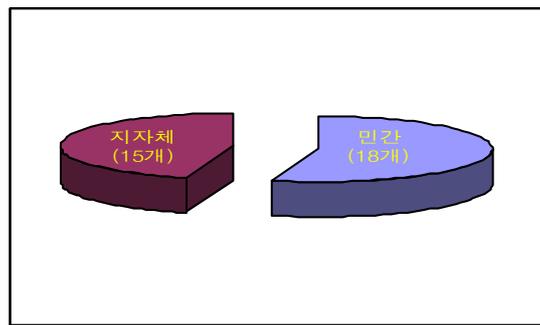
[서울] (5) , [부산] (2), [강원도] (5), [충청도] (4), [전라도] (8), [경상도] (7)

4) 본 연구서(『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 참조

- 또한 33개의 문학관 중 19개(57.6%)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42.4%)는 민간이 건립 및 소유하고 있다. 민간 소유의 문학관 14개와 지자체 소유의 문학관 4개 등 모두 18개의 문학관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탁 등의 형식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문학관은 김유정문학촌(소설동인예맥), 미당시문학관(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 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 경남문학관(경남문인협회) 등 4곳이다.



<그림 2> 문학관의 소유주체별 현황



<그림 3> 문학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 건립 중 】

<표 4> 지역문학관 개요 : 건립 중 ⁵⁾ (2006. 5. 1 현재)

[경기도] (1)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양평	황순원문학관 <소나기마을>	2007	o 건립 추진 중	

[부산] (1), [인천] (1), [강원도] (2), [충청도] (3), [전라도] (4), [경상도] (2)

2-3-2. 프로그램 운영 사례⁶⁾

- 2005~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5) 본 연구서 참조

6) 본 연구서 참조

<표 5>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프로그램

분 류	단체명	대 표	지원대상사업
문학제			
낭송			
강좌/강연/교육			
전시			
경연			
체험			
집필실			
기타			
계	18개 문학관(* 협회 제외)		34개 프로그램(* 협회 제외)

<표 6>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프로그램

분 류	단체명	대 표	지원대상사업
문학제			
낭송			
강좌/강연/교육			
전시			
경연			
체험			
정보화			
집필실			
기타			
계	24개 문학관(* 협회 제외)		31개 프로그램(* 협회 제외)

<표 7>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활용 프로그램

분 류	단체명	대 표	지원대상사업
문학제			
체험			
교육/공연			
경연			
계	11개 단체		11개 프로그램

3. 경기지역 문학관 정책 검토

3-1. 경기지역 문화자원 및 문학인 7)

3-2. 경기지역 문학 및 문학관 지원 실태

3-2-1. 문학 지원 현황

- 먼저 경기도 차원에서의 문학 지원 실태를 경기도 홈페이지, 도 관계자와의 전화 등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진흥사업 실무자로부터 ‘경기도 문학 지원사업은 거의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확인된 사항이기도 하다.
- 그렇다면, 경기지역의 문학 지원 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5년 간 재단의 정기공모사업 중 문학분야 지원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경기문화재단의 문학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기공모사업	문학지원	비율	비 고
2002	1,849,500	162,000	8.8%	
2003	1,860,500	180,000	9.7%	
2004	1,888,500	195,000	10.3%	
2005	2,198,600	178,000	8.1%	아마추어 28,000
2006	2,132,000	194,000	9.1%	아마추어 30,000
계	9,929,100	909,000	9.2%	

- 정기공모 지원사업에서 문학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상 비중은 평균 9.2%인데, 이는 국가(중앙) 단위의 문화예술 지원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치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공모 지원사업 중 문학 분야 예산은 18.4%(총 13,315,650천 원 중 2,447,000천 원)로서 경기문화재단의 약 2배에 이른다.
- 경기문화재단의 문학 분야 지원예산의 비율은 연도 중반 이루어지는 수시지원사업과

7) 본 연구서 참조

기획사업의 예산을 제외한 것이다. 연도 중반 사업의 경우 각 장르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공연예술 등 문학 이외 장르를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문학 분야 지원예산의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3-2-2. 문학관 지원 현황

- 경기지역에 소재한 문학관은 2곳(조병화문학관, 만해기념관)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이마저도 도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다. 조병화문학관이 기초자치단체(안성시)로부터 1천만 원(2005년도)을 지원 받았는데, 이는 조병화문학관의 총 수입(59,240천 원)의 17%, 연간 총소요예산(107,700천 원)의 9.3%에 해당된다. 8)

<표 9> 2005년 경기지역 문학관의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문학관명	총소요 예산	수입 내역			
		재원	금액	비율	
조병화문학관 (안성)	107,700	외부	중앙정부	0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문예진흥원)	16,100	27%
			지방자치단체	10,000	17%
			후원(개인/기업)	33,140	56%
		자체	운영수입	0	
만해기념관 (광주)	100,000	외부	중앙정부	40,000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문예진흥원)	13,000	13%
			지방자치단체	0	
			후원(개인/기업)	15,000	15%
		자체	운영수입	32,000	32%

자료: 연구자의 인터뷰 조사 결과(조병화문학관 05.11.28, 만해기념관 05.12.3)

- 『경기 비전 2006』(경기도, 2005)에 의하면, 경기도는 63개 역점사업 중 하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설정하고 그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개선·활용 - 지역별·장르별 문화기반시설 설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계획으로 백남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의 건립, 문화산업 클러스터 확대 조성 사업 말고는 찾아볼 수 없어, 아무리 이 비전이 단기계획의 성격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장르별’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8) 연간 총수입이 총소요예산보다 48,460천 원 적게 나타났다. (2005.11.28 인터뷰 조사 결과)

- 이에 경기도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창작·발표·향수의 공간인 박물관·미술관(도내 68개)이나 문예회관(1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학관(2개)을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의 엄연한 일환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고, 이를 통한 경기지역 문학 활성화의 기틀을 조성해야 한다.

3-2-3.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정책 검토

① 지역문학관 건립의 의의

-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정책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001 문화정책백서』(문화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학관 건립과 해당 지역출신 문인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 사업으로 문학관 건립 등에 1997년에는 경남 통영군(청마 유치환)에 5억 5,000만 원, 1998년에는 강원도 춘천시(김유정)에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경북 칠곡군에 구상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고 최명희 작품인 ‘혼불’의 배경 마을을 문학 체험 공간 및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혼불문학마을’ 조성에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 왜 이 무렵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문학관 지원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을까. 일차적으로는 백서에 있는 대로 문학관도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들이나 문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즈음부터이므로 문학관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역문학 활성화를 바랐음직도 하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지원정책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표 10> 참조), 그 사업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문학 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 둘째 문학관의 소장 자료를 보존·강화하는 한편,
 - 셋째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사업 취지가 반영되어 2004년 한국문학관협회가 설립되었다. 각 지역문학관이 그나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이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문학관협회

에서는 각 지역문학관의 연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합 문학행사 개최 및 정보 교류와 기획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하며, 지역민에게 문학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문학관협회는 발족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자생력이 미흡한 편인데다가 자체 운영체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어도 발족 후 10년 동안(2014년까지)은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관협회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국 문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자생력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표 10>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의 문학관 건립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02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전라남도	채동선음악관	900	음악관
경상북도	동리.목월문학관(경주시)	1,200	
경상남도	노산이은상문학관(마산시)	600	*마산문학관으로 개칭
강원도	이효석문학관(평창군)	600	
계	4개소	3,300	

[2003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전라북도	최명희문학관(전주시)	300	
경상북도	이육사문학관(안동시)	600	
충청북도	정지용문학관(옥천군)	300	
계	3개소	1,200	

[2004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충청남도	신동엽문학관(부여군)	370	
충청북도	오장환문학관(보은군)	250	
부산시	김정한문학관(금정구)	250	
강원도	이효석문학관(평창군)	23	재해복구비
계	4개소	893	

[2005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강원도	김동명문학관(강릉시)	150	
	박인환문학관(인제군)	200	
충청북도	충주문학관(충주시)	150	
충청남도	만해문학체험관(홍성군)	450	
전라북도	놀이문학관(무주군)	500	
전라남도	김남주문학관(해남군)	200	사업취소
계	6개소	1,450	

[2006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인천광역시	강화문학관(강화군)	100	
충청남도	박동진기념관(공주군)	420	음악관
	만해문학관(홍성군)	450	
전라북도	석정문학관(부안군)	400	
전라남도	정채봉문학관(순천시)	190	
경상남도	박재삼문학관(사천시)	180	
계	6개소	1,740	

② 지역문학관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초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을 바꿔 프로덕션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배제하고 사전제작이나 기반시설 확충, 인력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문학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언급한 앞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문화정책이 문화산업 분야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문화관광부는 같은 해 10월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 문화공간 활성화 등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인데, 그 일부가 바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문학인의 집 건립, 지역문학관 50개소 건립'이다.
- 전국 여러 곳에 다양한 문학관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나, 각 지역의 모든 문학관이 문학관 설립 목적에 맞게끔 관리·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지원되는 동안 이미 설립된 각 지역문학관들은 낡아가고 있다.

이제 문학관 지원정책은 하드웨어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학관 건립이 필요한 곳은 계속 지원하여 세워나가고, 이미 세워진 문학관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전문 인력이나 문학프로그램 지원, 전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31개의 문학관 문학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표 6> 참조), 일견 각 문학관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문학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침이나 문학관 프로그램 지원정책이 잘 반영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실은 아쉬움이 많이 묻어난다. 그 문학관만의 독자성이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어떤 사업들은 지역의 대표성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이유가 뭘까? 요인은 간단하다. 각 문학관들이 문학프로그램을 기획할 만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고유 업무인 자료 보존, 전시, 문학 교육, 문학 교류 등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각 문학관을 특징 지우는 데이터베이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역량을 투입하자는 게 아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전문화를 요구한다. 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 지금 당장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인력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통해 문학관 관련자들의 기획력과 관리업무 등을 끌어올려 주든지 해야 한다. 건물만 그럴 듯하게 지어준다고 해서 문학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는 없다.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에너지가 바로 소프트웨어 지원이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전문 인력 또는 그 역량이며, 바탕은 예산의 지원이다.
-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문학관 지원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학관 건립이라는 인프라 조성 정책은 당연히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각 지역문학관이 자생적·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도 전폭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병행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문학관 건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학 분야 정책이 문학관 건립 초기 단계 때부터 충분히 전략적으로 구상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3-3. 지역문학관의 위상 및 역할

3-3-1. 지역문학관의 위상

① 현재의 문학관 위상 검토

- 전시와 기념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문학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공히 만족시키는 문학관은 현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김유정문학촌만 해도 머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창작집필 공간 같은 여유가 없다. 창작집필실을 갖고 있는 백담사만해마을이나 토지문화관의 경우도 문학 순례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만족할 만큼 펼치지 못한다. 이처럼 문학 교류의 장, 혹은 문학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니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싶다.
- 하지만 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미당문학관을 들어보자. 미당문학관은 미당 서정주의 친일 이력 시비가 불거지는 바람에 장차 다른 문학관을 설립할 때 한 시금석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 미당문학관이 있는 고창은 문화 관광원이 대단히 풍부한 곳이지만, 이런 좋은 입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 때, 상징으로 떠오른 게 바로 국화였다. 미당과 <국화 옆에서>는 거의 동시에 생각되므로 미당과 국화를 연결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 국화를 매개로 미당문학관과 미당의 묘소, 질마재를 연결하고 나니 홍보는 자연스레 이뤄졌다. 방송과 언론에서 앞다투어 소개해준 것이다. 이제 고창하면 국화를 떠올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여 미당문학관은 선운사, 고인돌, 복분자, 풍천장어와 함께 거창 문화의 한 거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마 고창의 가을은 미당문학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문학관이 그저 한 공간으로 머무는 게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 강원도 평창 봉평의 이효석문학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당문학관의 국화처럼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메밀을 상징화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효석 문학관이 미당문학관과 다르다면 문화라기보다는 레저와 연계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야생화 농원이랄지, 허브 농원 등과 함께 레저 벨트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탐방객은 늘어나는데 보여줄 것이 마땅찮은 것이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이 현재로서는 김유정문학촌이다. 김유정문학의 유산이라고는 터뿐인 이곳이 지금은 문학 순례자의 주요 코스로 자리잡았다. 요인은 단순하다. 이곳에는 문학학예사 역할을 하는 이가 있었던 것이다. 전상국 총장은 탁월한 문학학예사(큐레이터)였다. 유산 하나 없는 곳을 김유정 문학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는 우선 김유

정 문학을 오늘에 되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유정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배경을 산책 코스로 개발하고 소설 속 인물 찾기를 문학축제 한마당으로 불러냈으며, 당시의 습속을 오늘과 맞물려 보여주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뛰어난 기획력이었다. 이렇게 뛰어난 기획력을 문학행사를 통해 보여주자 예산 문제도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쉽게 풀렸다고 한다. 또한 2006년 5월 현재 김유정문학촌은 그 안팎으로 온통 우리 야생화를 심어 어린 학생들에게 야외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 여기서 여타의 문학관들이 서둘러 확보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도출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 첫째는 문학학예사(큐레이터)라고 할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사람 없는 문학관은 없다. 문학관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끌어들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그 문학관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역량이다. 김유정문학촌에 전상국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취가 있었을까 싶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전문 인력과 그 역량을 현실적으로 담보해 내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원천이므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 아울러 끊임없이 관심을 유발하는 탁월한 기획력이 요구된다. 전문 역량 하나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연속적인 기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의 탐방객들이 찾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 문학관이 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김유정문학촌처럼 문학관 자체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 독창적인 정체성의 확보이다. 그 문학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맞볼 수 없는 독자적인 아이템과 상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지역 문화 벨트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문학관만 가지고는 다양한 탐방객의 요구에 다 부응하기 어렵다. 반드시 주변 문화 시설이나 유산을 문학관에 끌어들이야 한다. 입지 조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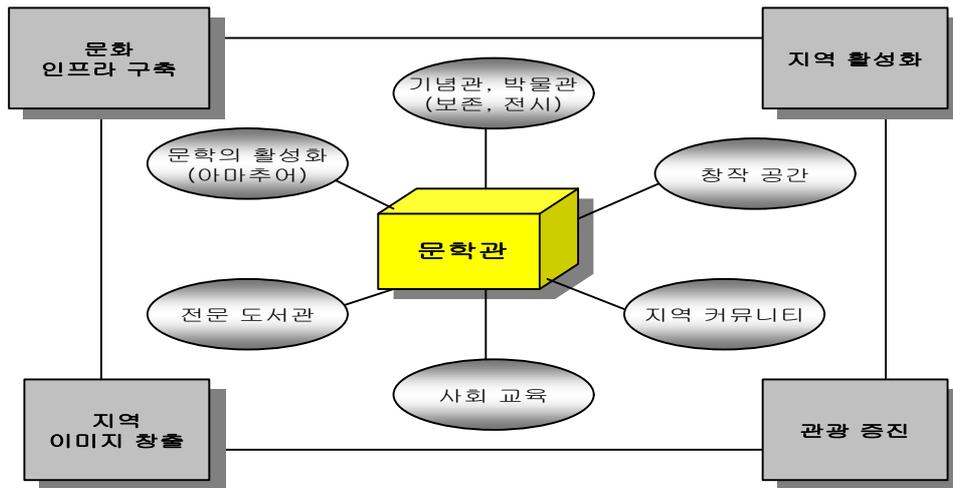
② 특성화 문학관의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문학관들은 대부분 어느 한 문인을 기념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 문인이 한 세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인을 기념하는 문학관이 곳곳에 세워진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성 차원으로 접근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 문제를 질러가자면 특성화한 문학관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왜 근대문학관, 시조문학관, 수필문학관, 도시문학관 등과 각 지역명을 딴 문학관을 짓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한 개인 문학관 못지않게 장르문학관과 문학사적인 문학관, 도시문학관 등도 필요하다.
- 그런 점에서 문학의 집·서울, 세계여성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등은 각기 소중한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문화 축적이 한 개인의 명예와 자산 획득의 면모를 보이는 곳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개인의 금고에서 잠들지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 예컨대 한국가사문학관의 존재는 얼마나 귀한가. 비록 문학큐레이터 한 사람 없이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마저도 없음을 가정해 보라. 오래지 않아 가사문학은 우리의 문학사에서 화석화하고 말 것이다. 문학 자산이나 문학 유산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치 않다. 특성화한 유형의 공간 속에 무형의 자산을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고 문학 전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국가사문학관 같은 곳은 문학교육의 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사문학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인사나 기관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⁹⁾
- 이와 같은 발상으로 경기지역에도 특성화한 문학관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남북통합문학관(또는 분단문학관, 통일문학관)이랄지, 우리 문학의 젖줄 구실을 한 한강문학관, 주변에 산재한 공단을 주제로 한 공단문학관(또는 노동문학관) 같은 것은 경기지역에 세워도 충분한 아이템이다.
-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문학관을 찾고자 하는 탐방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경기지역 문학관을 찾는 발걸음이 잦고, 또 그만큼 요구도 많아질 것이다. 정리하면 둘 중 하나다. 성지처럼 문학 순례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지 놀이처럼 즐기고 싶은데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문학관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성지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거나.

3-3-2. 지역문학관의 역할

9) 현재는 김유정문학촌, 미상시문학관, 최명희문학관, 경남문학관이 그렇다.



<그림 4> 문학관이 지역에 가지는 영향

3-3-3. 지역문학관의 활용

가. 사회 교육의 장

- 문학관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문학관과 사회교육이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교육이 문학 발전에 공헌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관을 문화단체나 대학과 연대하여 자원봉사자나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사람들에게도 각 문화기관들이 축적된 지식을 공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관과 교육기관이 연대해서 문화협동의 기반을 쌓고 문학을 통한 새로운 지역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넓힘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나. 문학 향수의 공간

- 우리 사회는 디지털지식사회로 급변해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많은 교육이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시절 교육이나 인적 자원 개발은 주로 학교교육을 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런 디지털지식사회 속에서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 배워 나가는 지혜와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관은 지역의 문학향수 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문학관이 지역의 문학향수 공간으로서 그 영역을 넓혀 가려면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 즉 문학을 중심으로 영화, 음악 등 다른 예술 분야와도 연계, 문학적 자극으로 유

발된 새로운 창조 활동, 찾아가는 문학관(동호회, 학교 등), 문학관 이용자의 실수요 층과 홍보 활동을 겸해서 기획전 개최 기간 중에 대학이나 협력기관으로의 출장 해설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다.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 문학관은 문화적인 삶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주민들이 문학관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게 되며, 나아가 상호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뿌리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 문학관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중심거점으로 활용되려면 만남과 휴식이 있는 문학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커뮤니티의 첫걸음은 사람이 모이고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문학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문학관이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라. 장소마케팅의 대상

- 최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역 기반적 발전 전략(territory-based development strategy)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략은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상업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외의 출향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향토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 확보뿐 아니라 지식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인식은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장소마케팅의 대상으로서의 문학관이 활용되는 내용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0)

- ① 문학관 건립의 지역발전 효과
- ② 지역의 거점 구축과 활용
- ③ 지역의 정체성 확립

10) 본 연구서 참조

- ④ 향토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문학관
- ⑤ 파트너십 형성
- ⑥ 홍보 활동

4. 경기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관 정책

4-1. 문학관 신규 건립 전략

4-1-1. 문학관 건립 확대의 필요

가. 경기지역 문학자원의 보존과 계승

- 경기도는 고대에는 마한이었으나 고구려·백제·신라의 정립 속에서 삼국시대 공방전의 중심을 이뤘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유적을 두루 다 갖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500년 이상의 도읍지와 현재의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학문적·예술적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계승할 만한 술한 인물들이 나고 스러진 지역이다.
- 문학인 지도로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나온 『경기문학지도』(경기문화재단, 2000)의 서문 형식의 글에서 공동 집필자들은
 -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문학적 저력이 새삼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멀리는 이규보, 이율곡, 정약용으로부터 가까이는 박두진, 고은, 김지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경기도에 살면서 우리 문학사를 빛냈던 이들이 이토록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야말로 발 닿는 곳이 다 우리 문학의 박물관이요 살아 있는 현장이었다’고 실토하는가 싶었는데, 이내
 - ‘변변한 표지판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외진 구석에 파묻혀 이제 곧 들이닥칠 포크레인의 삽날만 기다리고 서 있던 유적이 몇’이었던냐며,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돌아서는 마음이 더 착잡해지던 기억도 선하다’고 고백하고 만다.
- 서울 중심의 압축적인 근대화의 뚜렷한 한 현상으로 간주되는 수도권인 인구 집중은 곧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팽창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당연히 산업화의 역군들뿐만 아니라 문학인들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집중을 아울러 뜻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는 문학관이라고는 문인 당사자가 생전에 사재를 털어 세운 조병화문학관과 후세의

연구자가 역시 사재를 쏟아부어 세운 만해기념관 등 딱 2곳밖엔 없다.

-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사 100년사에 경기도 출향, 또는 연고 문인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시와 소설 분야의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간 문인들만 생각나는 대로 몇 사람 들어보더라도, 박팔양, 나혜석, 한용운, 천상병, 박두진, 조병화, 정지용, 변영로, 기형도, 심훈, 고정희, 박종화, 노천명, 방정환, 김상용, 박인환, 이광수, 이무영, 이희승, 정인섭, 유진오, 신석초, 주요섭, 김동환, 최정희, 박봉우, 한하운, 유주현, 홍사용, 이문구 등등이다.
-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창조적 삶의 궤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문학인들의 문학적 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수집, 보존, 계승, 전시와 그 예술적 업적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 연구 등을 위해서라도 문학관이 필요하다. 2004. 12. 31 현재 경기도 내 박물관·미술관은 총 68개(국공립 16, 사립 43, 대학 9)¹¹⁾, 문예회관은 19개, 문화의 집은 17개인 데 비해, 문학관은 2곳(조병화문학관, 만해기념관)에 불과하지 않은가. 문학관의 수는 크게 확대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경기도에만도 최소 20개 이상의 문학관이 더 세워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 문학정책 환경 변화의 수용과 견인

- 197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해 전개되기 시작한 문학 지원 정책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 첫째는, 문학인들의 창작 발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
 - 둘째는, 문학 작품집이 나올 수 있도록 출판 행위를 보조하는 것,
 - 셋째는, 발표된 작품(집)을 국민(독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
 - 나머지는, 문학단체에서 행하는 세미나, 시낭송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문학에 대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지원은, 생산(창작/집필) 행위든 소비(독서) 행위든 대체로 '닫힌 곳'에서 '나 홀로 하는 것'이라는, 문학 장르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기대하거나 측정하는 데 참으로 어렵다. 전통적으로 서적이거나 구전(口傳)의 형태로 보급되고 향유되어 온 문학이라는 장르는, 대체로 '열린 곳'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것'인 공연예술 장르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11) 이 연구의 범위에 속하는 경기지역 문학관 2곳 중 하나인 '만해기념관'(광주)의 경우, 박물관(사립)으로 등록되어 있다.

-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의 확대와 시장원리의 강조는 기초학문의 경시와 실용성 중시 풍토로 이어지고, 이에 정신적 가치의 집합체인 인문학과 문학의 침체 현상이 깊어졌다. 아울러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디지털·영상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즉흥적·감각적 문화소비 행태가 사회에 만연한 것도 문학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과 디지털 영상매체의 발전 등 새로운 외부 환경에 기성 문학계가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일반인의 문학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아 문학과 대중 간 괴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과중한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 국민의 문학행사 참여 희망률 : 00년 5.3% → 03년 2.4%
 - 청소년의 문예반, 청소년문학제 참가 등 문학활동 참여 희망률 : 00년 4.7% → 03년 0.5%
- 그럼에도 지식정보화사회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내는 창의적 인간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문화예술 및 문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문학교육은 미래의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의 주말 여가활동은 시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독서, 영상 및 공연 관람, 관광 등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이들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생활 및 문화생활의 다양화가 예상된다. 이에 전문적으로 관광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나, '남과 다른 여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 돈을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금전소비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소비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의 역할 또한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형 소비자'로 변화되어, 개인의 창작활동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문학 분야에서도 문학강좌 참여, 문학기행, 문화유적지 답사 등 문학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독자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창조와 참여 중심의 입장으로 스스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에 자기표현 매체로서의 특성이 유달리 강한 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므로 문학정책을 수립·전개하는 중앙/지방정부 등에서는 참여형 시간소비를 위한

프로그램, 복지적·창조적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견인에 새로운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조성돼 온 지방문화원, 1980년대부터의 문예회관, 1990년대의 문화의 집 등 문화 분야 인프라 조성 정책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은 것(프로그램 등 운영 측면은 차치하고)으로 보이는 이 때, 중앙/지방정부의 문학관 건립 정책은 만지지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는다.

- 그 외양에 있어서 오랜 동안 변화를 모르던 문학분야 공공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제부터 문학관 건립과 이 문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반적인 문화정책 대상을 하드웨어(Hardware, 시설), 소프트웨어(Software, 예산·제도·법령), 콘텐츠웨어(Contentware, 프로그램), 휴먼웨어(Humanware, 인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인프라(Infrastructure)란 대개 하드웨어(Hardware, 시설)를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정책이 거의 필요치 않아 왔던 문학 분야 정책의 모습과 운명이 이제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크게 달라진 것이다.
- 문학도 이제는 <책 밖으로> 나와야 하며, 책 밖으로 나온 문학이 머물면서 사방으로 흘러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문학관이다. 문학관은 <문학의 저수지(貯水池)>이기 때문이다.

4-1-2. 문학관 건립 원칙과 방향

① 계획적·체계적 건립과 운영

-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된 문학관은 부산의 추리문학관(대표 김성중)이며, 1992년의 일이다. 그 1년 뒤인 1993년 한 사람의 문학인을 기리는 박물관·기념관형 문학관으로는 최초인 조병화문학관(대표 조진형)과 한무숙문학관(대표 김호기)이 각각 경기도 안성과 서울 종로구에 세워지고, 다시 2년 뒤에는 전남 목포에 박화성문학기념관¹²⁾이 문을 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의 남다른 뜻에 따라 사재(私財)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건립 지원이 해당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문학관이 지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문학관 시설은 다른 문화기반시설, 예컨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인구 수나 밀도 등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일반적인 문학관은 대개 해당 문학인의 문학 유산을 수집,

12) 1991년 개관한 향토문화관 내에 있던 박화성 문학 유산들을 따로 모아서 1995년 3월 현 목포 문화원 2층에 독립시킨 것이 박화성문학기념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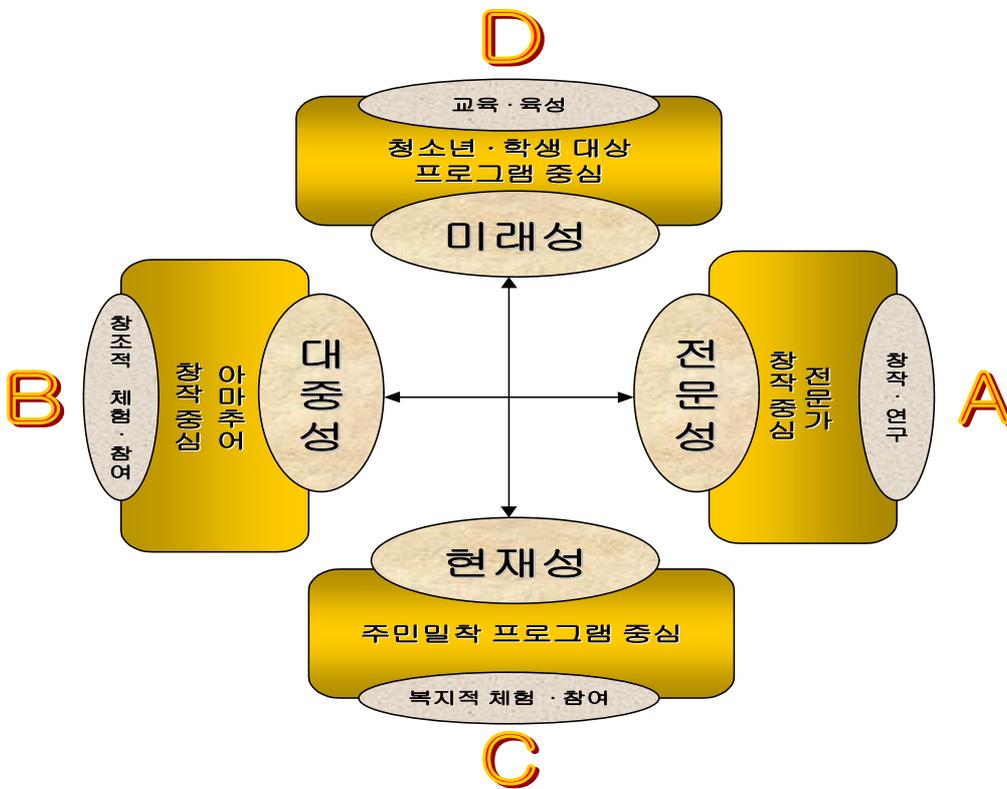
보존, 계승, 전시하는 기념관(또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여져야 한다는, 또는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곤란하다.

- 지금까지의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고, 확일적으로, 또는 실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나 전망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문화시설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흔했다. 문학관 건립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 통합, 즉 건립 주체(지자체 등), 설계 및 시공 주체, 향후 운영 주체, 문학인, 지역민 등 제 각각일 수밖에 없는 관점과 생각의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는 하드웨어 조성 위주로 시설만 똑딱 세우고, 운영과 인력 및 소프트웨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사전 및 사후에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 문화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문학관 건립에 수십억 원씩 투자하고도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나 사업 지원에 대한 수천만 원의 투자를 아낀다면, 그 문학관은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영리적인 일부 시설이나 소규모의 전문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인프라(특히 문학관)를 활용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의 건립과 운영은 정부의 영역이다.
- 그러나 문학관 건립은 문학인, 문학단체, 문학 또는 해당 작가 애호가들의 공동 노력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 일종의 문화 운동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경우 문학 동호회가 문학관 설립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잊혀져 있던 문학관을 찾아내고 여론을 모아 문학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대부분 동호회에서 시작되며, 많은 수의 프랑스 문학관들이 동호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다. 사실 프랑스에서의 문학관 설립이나 운영은 이들 동호회의 활동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② 문학관별 전문화·특성화

-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은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문학인의 생가(터) 보존은 문학관 정책의 가나다이다. 개발 등 그 어떤 이유에서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문인들의 생가나 주요 흔적들을 흠과 함께 섞어 지워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전문성↔대중성' 축과, '현재성↔미래성' 축을 교차시켜 놓고 따져보면 보다 선명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은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소임이므로, <그림 7>의 A, B, C, D 모든 부분에서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개념이다.
- 문학관의 기능 배분 개념도를 각각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문학관의 기능 배분 개념도

- A형 :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학인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위한, 즉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관은 창작집필실 기능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하여는 일정량 이상의 전문(문학 등)도서와 서고를 갖춘 도서관, 세미나실 등이 함께해야 바람직하다. 집필, 세미나 외에 국내 문학인들 간, 또는 해외 문학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할 것이다.

- B형 :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문학의 대중화를 가장 강조하게 되므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아마추어 문학 애호가들의 창조적(문학적) 체험과 참여 활동을 위한, 즉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학관은 작품 낭독회, 문학 강좌(아카데미), 백일장 등의 사업을 중점 전개하게 되며, A형과 마찬가지로 일정량 이상의 전문(문학 등)도서와 서고를 갖춘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이 갖추어져야 좋다.

- C형 :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

주민 친화형, 또는 밀착형 문학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즉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이 된다. 즉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주민들의 복지적 체험과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문학관은 예컨대 작품 속 생활 체험하기, 지역 주민 대상 문학축제 등의 사업이 중심이 된다. A나 B형과 같은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등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문학관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 D형 :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

문학의 가치를 미래의 주역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문학관으로서, 청소년과 학생들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즉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문학관은 청소년과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제성 있는 자료의 기획 전시, 백일장·문학강좌 등의 행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된다. 적정 수준의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컴퓨터실, 영화(비디오) 감상실 등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초·중·고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이 개발 및 유지되어야 한다.

- 이 네 가지의 개념은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가지 개념이나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은 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이에 이 개념도는 기능보다는 가치의 배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문학관이 둘 이상의 가치를 동시 추구하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림인 것이다.
- 그럼에도, 예를 들어 A형의 경우, 특히 C형과는 거의 공존하기 힘들 것이며, 반면에 B-C, B-D, C-D, 또는 B-C-D의 결합(절충)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치의 배분은 명확한 운영 철학에 기초해야 하지, 이도 저도 아닌 단순한 비빔밥 풀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③ 문학관 건립의 지역별 모형 제안

- 경기지역 문학관의 신규 건립을 위해 제안하는 지역별 모형이 아래 그림이다. 그림 속의 문학관 하나하나의 이름에 부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구자들의 거친 관점에 따라 일차로 간추려본 것이며,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문학관의 지역별 모형(안)

4-1-3. 문학관 건립 유형의 구분

① 박물관·기념관형

- 앞에서 언급하였듯,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인,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을 첫째 가치로 하는 유형이다. 문학인의 생가(터)의 경우, 문학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의

유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문학관의 한 유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앞에서 제안한 지역별 신규 건립 문학관 중 해당되는 것은, 만해기념관(광주, 운영 중), 조병화문학관(안성, 운영 중), 천상병문학관(의정부), 방정환문학관(구리), 기형도문학관(광명), 홍사용문학관(화성), 유주현문학관(여주) 등이다.

② 도서관형

-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을 기반으로 하며, 학문적 연구의 메카를 자임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신규 건립을 제안한 문학관들 중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근현대문학관, 한국고대문학관, 한국시조문학관, 한국수필문학관, 한국청소년문학관, 한국어린이(아동)문학관 등이다.

③ 교류형

- 해외 유명 문학인들과의 교류가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 교류 전문 공간이며, 이에 맞는 국제회의실, 일급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 문인들 간의 교류가 빠져서는 안 된다.
- 국제문학교류센터(김포)가 세워진다면 이 유형이며, 앞의 박물관·기념관형과 다음의 집필실형도 문학인들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집필실형

- 말 그대로 문학인들의 창작 집필실 제공을 위한 유형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토지문화관(원주), 백담사만해마을(인제) 등 2곳밖에 없지만, 인구가 밀집된 경기지역에 적어도 5곳 이상의 집필실 공간을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단 작고 문학인들의 이름을 딴 창작 집필실의 경우 그 이름만으로도 창작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문학적 권위가 인정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만해창작집필실(광주), 박두진창작집필실(안성), 이문구창작집필실(화성), 황순원창작집필실(양평), 경기문인창작촌(가평) 등을 제안한다. 앞 4곳은 박물관·기념관형의 성격을 함께 띠게 된다.

⑤ 테마형

- 일정한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문학 유산들을 수집, 보존, 전시, 교육, 연구 등을 첫째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유형이다. 해당 문학관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으며, 박물관·기념관형이나 도서관형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 이 유형에 해당되는 신규 건립 문학관은, 남북통합문학관(과주), 한국생태문학관(연천), 한강문학관(구리/하남), 노동문학관(시흥/안산), 홍길동문학관(용인) 등을 들 수 있다.

4-2. 문학관 건립과 운영의 기본 조건

4-2-1.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조건

- 문학관의 기능 박물관·기념관으로서의 기능,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문학 창작 공간으로서의 기능, 문학인들의 국내외 교류 기능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예산, 지리적 조건, 개관 후의 유지·관리 비용도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화제성이 풍부한 독창적인 건축물의 설계에도 문학관에 반드시 필요한 고유 공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집, 전시, 관람, 사무 공간의 배치는 이념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장공간, 전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의 배치에 주의해야 한다. 전시 중심의 문학관의 경우 모든 전시공간과 전시실의 2~3배의 수장 공간이 필요하다. 문학관의 자료는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 위탁에 의한 것이 많아 수장고가 완비되어야 한다.
- 문학관의 가치는 표면에 나타나는 전시보다도 숨어 있는 자산, 즉 수장 자료의 가치에 있다. 그 밖에 전시물 교체를 위한 작업 공간, 집회실, 연구실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용효율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한편 지역문학관이 다른 문화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 정체성 확보에 뛰어난 역할을 담당한다손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만의 계획에 의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문학과 문화의 생리에 비추어볼 때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

의 경우처럼 민간의 노력으로 시작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민간의 노력은 현실적으로는 문학인들과 문학단체가 될 것이며, 이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의 연구 지원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어진다.

4-3. 문학관을 기반으로 한 문학진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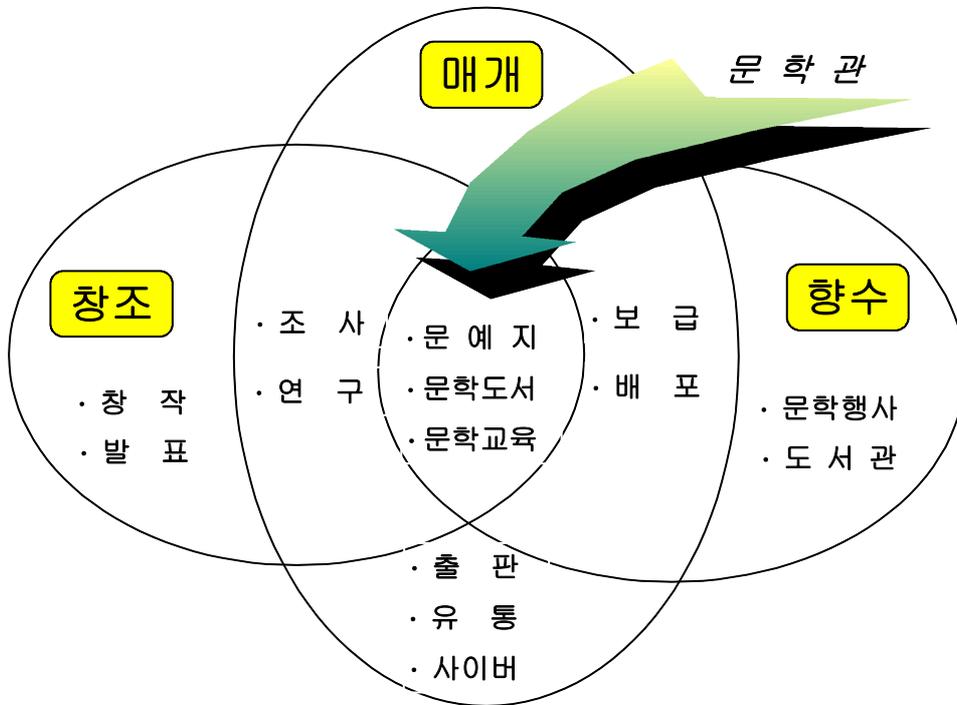
4-3-1. 새로운 문학 정책의 틀거리

- 지금까지의 문학 정책은 한 마디로 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학의 위기에 대한 공허한 외침만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우리 문학의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일관하였다. 문학의 위기를 문학 자체, 또는 문학인의 일방향적 관점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 또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등 국민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 생활 속의 문학 활동이 침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었다. 문학은 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오랜 관습과 결국 독서뿐이라는 불각(不覺)의 현실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곧 문학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2005년에 이어 두 해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우수 문학 작품의 보급과 배포 사업도 ‘얼마나 잘 읽었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라는 공급자 관점을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반 국민들이나 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각종 문학 행사들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공급자인 문학인들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 문학 안으로만 함몰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문학과 유리(遊離) 또는 부상(浮上)된 채 이뤄지기 일쑤였다.
- 이제 문학 정책은 창작 발표 지원, 독서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 위주에서 탈피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각예술이나 공연예술 장르의 경우 그 고유 성격상 의당 그러할 수밖에 없겠지만 박물관·미술관, 공연시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여가 생활 기회의 확대, 디지털 환경의 변화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향수를 그리 쉽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 지금까지의 문학과 문학 정책에 대한 인습적 사고에 젖어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

설정을 게을리 한다면, 문학의 위기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문학을 즐기는 방법도 이제 닫힌 방의 책상 위에서 이뤄지는 독서 이외의 수단이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열린 바깥으로도 나가야 한다. 문학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야 문학을 ‘만드는’ 이들도 존경 받고, 또 살아갈 만하지 않겠는가.

4-3-2. 문학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중심에 문학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7>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모형

-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중심 수단인 문학관의 여섯 가지 정책적 이념을 ‘문학적인’ 비유로 표현하면, ① 문학관은 <문학의 저수지(貯水池)>, ② <그 곳>에 가면 문학이 있다, ③ <성지(聖地)>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거나, ④ 문학도 이제 <책 밖으로>, ⑤ 문인들이 글을 쓰는 <어떤 곳>, ⑥ 문학에서 <문화로> 등이다. 물론 이들 여섯은 결코 상호 구별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중첩되거나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역할이 강화된다.

① 문학관은 <문학의 저수지(貯水池)>

문학인의 유품, 창작 메모, 육필 원고, 장서, 초판 작품집, 잡지 창간호, 장서, 인장, 문방구, 사진, 자화상, 초상화, 애장품 등을 수집·보존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의 이념이다. 당시의 문학을 잉태하고 살찌운 기억과 흔적을 모아 전시·계승하는 것만으로도 후대의 문학에 여러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이념의 문학관은 문학의 장구한 역사에 공헌하고 있다.

② <그 곳>에 가면 문학이 있다

평소 일반 국민들에게 문학이란 적극적인 독서 행위를 전제로 한 작품집 구입이나 대여 말고는 손에 쥐어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학관에 가면 가까운 듯 멀기만 했던 문학을 손으로도 쥐고,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문학사적인 테마를 가진 문학관, 어떤 장르나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관 등의 경우, 일반 국민들 앞에는 문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작가나 연구자 등 전문 문학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문학을 만나게 해 준다.

③ <성지(聖地)>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거나

선대의 문학인들을 흠모하는 발걸음이 닿고 머무는 곳, 그곳은 성지로서의 문학관이다. 아마추어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이뤄지는 창의적 체험과 경험이나, 교과서에서나 배웠음 직한 고귀한 문학 작품의 숨결을 찾기 위한 순례는 문학관이 성지일 때만이 가능하다.¹³⁾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 문학을 쉽고 친근하게 여가 활동이나 관광의 차원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그 곳은 놀이터로서의 문학관이다. 성지로서의 문학관은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으나 아마 놀이터로서의 문학관으로는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이 가장 가까운 예일 것이다. 문학관은 성지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이념을 표방하면 아무것도 아닌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물론 둘 다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어정쩡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④ 문학도 이제 <책 밖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국민의 독서율만을 탓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문학 독자로 바뀌는 것이 그들이 '책 안으로' 들어갈 때뿐만은 아니다. 문학을 가장 성공적으로 책 밖으로 끌어낸 문학관은 위의 놀이터로서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일 것이다. 김유정 문학기행 열차, 김유정 작품 속 30년대 삶의 모습 체

13) 성지로서의 문학관은 그 기리는 인물이 과연 문학가로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추앙 받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문학가가 문학관이라는 성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백꽃의 토종닭 싸움, 떡메치기 등), 이효석 영상물 상영, 옛 봉평 장터 모형, 봉평 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프로그램들은 '책 밖의 문학'으로서 매우 모범적인 것들이다.

⑤ **문인들이 글을 쓰는 <어떤 곳>**

당연한 말이지만 문학은 문학을 창작하는 문인들로부터 비롯된다. 여느 예술이 다 그렇듯 문인들도 창작의 산실이 필요하다. 대개의 문인들은 사위가 시끄럽고 지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창작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문인들이 자신의 주거주지나 대도시와 적당히 단절된 곳에서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문학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신성한 일이다. 경기도 전역에는 이러한 신성한 일을 도모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곳들이 그야말로 널려 있다.

⑥ **문학에서 <문화로>**

저 앞에서 언급하였듯 프랑스 아라공문학관 관장은 한 보고서에서 문학관을 '문학과 독서, 책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촉의 욕구를 출현시키고 신장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대중들에게 열린 모든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쾰베른문학관 관장은 '보다 발전된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2세대 문학관'을 주장하며,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정의하고 구분 짓던 시기는 지나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문학관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운영 철학은 문학에서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 문학을 둘러싸고 급속하고도 혁명적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은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향유되는 여건과 방식이 정녕 달라진 문학의 뜰과 품 안에는 이제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보는' 관(람)객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장 공급자적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보급되어 온 문학의 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 그 중요한 한 자리를 분명 문학관이 차지하고 있다.

5. 정책 제언

5-1. 문학계의 지역문학관 건립 운동 전개

- 경기도 문학인들과 문학단체는 문학관 건립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¹⁴⁾

먼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큰 문학인들의 생가와 그 터, 작품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곳 등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멸실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이 문학관이라는 의미화(意味化) 작업과 함께, 박물관·기념관형, 도서관형, 교류형, 집필실형, 테마형 등 전문화·특성화된 문학관의 건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아울러 우리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학관들, 예를 들면 근현대문학관, 고대문학관, 수필문학관, 시조문학관, 청소년문학관, 어린이문학관, 생태문학관, 남북통합문학관, 노동문학관, 한강문학관 등도 연차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경기도를 우리 문학의 중심이나 순례지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내에 3~5개의 창작집필실을 건립하여 문학 창작의 메카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막중한 일이다. 경기도에 새로 세울 만한 문학관의 수는 최소 2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 제안이다.(<그림 6> 참조)

5-2. 국가의 지역문학관 정책 과제

5-2-1. 문학관 신규 건립 지원 확대

- 국민의 정부의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2002. 10.)에 의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문학인의 집 건립, 지역문학관 50개소 건립’이 아직도 유효한 정책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지역문학관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50개소가 아니라 전국에 최소 200개소 이상은 되어야 하며, 이는 인구 20~25만 명 당 1개소 꼴이다. 그래도 일본의 400여 개¹⁴⁾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 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1998. 10.)이 천명한 문화기반시설 건립 정책, 즉 2011년까지 공공박물관 500관(인구 9만 명 당 1관), 공공도서관 750개관(인구 6만 명 당 1관), 지방문예회관 248개관(지방자치단체별 1관)의 연차적인 건립 방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문학관의 수 50개는 너무 적다.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공공박물관 30%, 공공도서관 20%, 지방문예회관 20억 원, 문화의집 2억원)은 다른 부문,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보

14) 이렇게 민간(문학계)에서 주도하고 도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이 마땅하며, 여기에 대학 연구진들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립 추진 시스템이다.

15) 이 400여 개라는 수치는 일부 도서관 내에 꾸며져 있는 문학가 개인의 기념 문고를 포함한 것이며, 외국 문학가 기념관 등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문학관 수는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비율 30~5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2006년 문학관 건립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 30%는 이제 막 문학관들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간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0%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기존 문화기반시설은 지자체 신청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시설의 불균형, 유사시설의 중복 건립, 시설의 대형화 추진 등 시행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 문학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그리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의 집이나 문예회관 등과 달리 지역문학관은 대부분 해당 지역 연고 문인들의 다양한 문학 유산들이 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굳이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통한 통합적 시설 설립이나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강박 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시설이 보다 내실 있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그 타당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만 적절히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5-2-2. 문학관 관련 법규 구비 및 개정

-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문학관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조항이 없다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부재 또는 미비하다는 현실은 문학관 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다.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일견 바람직하게 보이나, 다른 여러 문화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편으론 너무 이상적이거나 시기상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별도의 독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문학관을 엄연한 문화시설의 하나로 명명하여 의미 지우는 것이 선결과제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 1조의2(문화시설의 종류)에도 문학관을 분명하게 포함 및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한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들 중 문학관은 대체로 전시시설의 박물관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 문학관은 단독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 현재는 일반 공연예술과 전시예술 장르, 그리고 복합적인 일반 문화 공간들의 경우 각각 독자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유독 문학 장르의 문학관만큼은 일반 박물관들과 무차별하게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의 대표 장르인 문학의 유일한 인프라가 문학관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문학관의 고유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나 문학인들과 문학을 찾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 그리 용이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5-2-3.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 제도 도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문예진흥법 제9조의2). 여기서 말하는 문화시설에는 당연히 문학관도 포함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박물관미술관법 제9조). 그러나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는 아직 없다.
- 이에 하루라도 빨리 문학관 전문 인력, 즉 문학 학예사(큐레이터) 양성 제도를 도입하여 수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문학관의 운영을 시급히 전문화·특성화해야 한다. 현 정부도 예술의 문화시설 전문 인력의 확충과 공공문화기관·시설의 문화 인턴십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밝힌 후 일부 실천하기 시작했으나, 문화시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 멀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에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한국문학관협회는 회원 문학관 실무자에 대한 2박 3일 간의 교육을 2년째(2005~2006년) 이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에 위탁해 오고 있으나, 일회적인 단기 연수 형식에 머물고 있다.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슬기를 다함께 모아야 할 때다.
- 2005년부터 문화시설의 전문성 향상, 예술경영 전문 인력의 현장경험 습득 기회 제공, 문화 분야 고용 확대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인턴사원제도¹⁶⁾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문학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 모든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06. 5. 1 현재 각 지역 문학관에 총 9명¹⁷⁾의 인턴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학관의 전문적 운영과 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는 새로이 양성되는 전문 인력들에게 자신의 직종(문학 학예사)이 엄연한 직업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심어줌과 아울러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수와 비

16) 인턴의 자격은 문화예술 경영 전공자나 일정 기간 이상의 유경험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이다.

17) 2005년에는 10명의 인턴사원이 각 지역문학관에서 근무하였다.

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명감에 불타는 어떤 직종도 평생직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5-3. 경기도의 지역문학관 정책 과제

5-3-1. 문학관 관련 조례 제정

-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⁸⁾.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지자체 문화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학관의 건립과 그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실제 결정하는 문학관 관련 조례의 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 문학의 ‘창작의 향내’와 ‘향수의 즐거움’과 ‘매개의 보람’이 한 자리에서 펼쳐질 수 있는 문학관, 전통적으로 책과 독서를 중심으로 소통이 되는 문학 장르의 특성상 정말 특별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 문학관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다. 문학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5-3-2. 문학관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지역 문학관 2곳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학관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시점까지 연차별 축소(또는 동결) 지원 제도, 또는 민간의 후원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s)나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d)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학관을 활용한 수입으로 건립 비용은 물론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의 가동은 정부의 업무 영역이며 책임이라 할 수 있다.
- 경기도에는 현재 지자체 소유의 문학관이 없으나 경기도가 문학관을 계속 지어 운영한다고 예상할 때는 건립 후의 운영 재원과 방안 등에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 인력과 시설의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폭

18)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만 한다면, 중앙정부(문화관광부)는 물론 그 밖의 다른 지자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파견 근무 제도는 단순한 순환보직이 아닌 문화 행정 전문직이라는 관점만 유지할 수 있다면,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과 그 비용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에 대한 토론문

전 상 국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 촌장)

지방분권의 시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비교우위의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 찾기로서의 지역문학관의 건립에 따른 올바른 정책의 당위와 그 틀을 제시한 박상언 원장님의 발표문은 이 방면 연구의 전범이 될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 문학관 건립은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와 그 누림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의미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거나 중앙에 비해 작고 낮은 것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야말로 민족문화의 보편성을 이루는 나뭇의 특수문화임을 확인하여 그 가치매김을 하는 계기로서도 지역 문화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문화 인프라 중에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이 그 지역 출신 작가 · 시인의 문학적 생애와 그 작품의 가치를 기리기 위한 문학관 건립과 그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제된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는 지역 문학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향후 지역문학관 활성화가 그 지역 문화의 바람직한 발전상이라는 면에서도 매우 뜻있는 논의라고 믿습니다.

특히 문화 인프라로서의 문학관은 창조, 유통, 향유를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통해 순수문학의 고유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그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역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는 향후 지역 문학관 건립의 가장 분명한 정책 제시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문학관 건립에 따른 올바른 정책이 필요성과 그 대안을 매우 포괄적이면서 구체성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중심 수단인 문학관의 정책적 이념을 좀더 친근한 이미지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과 지역 문학단체들이 그 지역문학관 건립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학관은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문학관의 개념 정리와 함께 박물관 · 기념관형, 도서관형, 교류형, 집필실형, 테마형 등 전문화 · 특성화된

다양한 형태의 문학관 유형의 제시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문학의 위기 시대에 그 대안으로서의 좀더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문학관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한 정책의 제의는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문학관 건립의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문학관 신규건립 지원과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과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정책 제시야말로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학관 건립의 당위와 그 정책의 필요성 또는 여러 규범이 되는 모형들은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질의를 통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문학관은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운영의 체계와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설립 주체가 지자체이며 그 운영 또한 지자체가 맡고 있는 문학관의 경우 운영의 효율적 체계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문학의 전문성과 다양성 혹은 질 높은 문화 사업을 창출하는 데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문화·예술 전문가의 안목이 아닌, 수시로 교체되는 문화 행정가의 안목에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학관 사업의 전문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문화 인프라의 구축 갖추기로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주체일 때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친근하게 접근한 상태에서의 사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주도의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냉대와 비협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건립 초기 단계에 있는 경기도 양평의 <소나기 마을> 황순원문학관이 처음부터 이런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문학관 건립과 그 운영의 특성화 전문화는 문학관 운영의 주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믿는데 현재 우리나라 문학관의 건립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르므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지역문화 인프라로서의 문학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3. 지역 문학관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 삶의 여유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주민소득과 직결되지 않으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네들 스스로 모든 행사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문학관 건립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지역 문학관은 그 고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무대요 그것을 활성화하는 창조 공

간으로서의 역할에 중심이 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학관이 단순히 유품 및 유적지 보존을 위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 고장 문화·예술의 거점이 되고 창조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강조일 것입니다.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문학관의 전망

이 덕 규 (시인, 화성문화원 이사)

작가에게 있어 대개의 처녀작은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서로 볼 때 대부분 최초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최초의 기억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특정한 장소이든, 지금 처해 있는 정신의 현주소이든 간에 삶의 원형성으로서의 한 공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곧 지리적으로 구체화된 특정한 지역이다. 지역은 다시 말해 단순히 작품의 배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것 이외에도 전통적 의미에서 한 지역의 색깔과 향기를 담은 그 지역의 정체성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지역은 문학의 기본단위이며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따뜻한 품이다. 살아 있는 한, 끊임없이 따라붙는 작가의 연고지인 지역의 역사, 다시 말해 과거 현재에 이르는 그 지역의 사건 사고, 아픔과 희열, 모략과 분열 또는 희생과 재결합을 거둬주는 끈끈한 사람살이의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삶의 구체적 현장인 지역은, 그러므로 문학의 최전선인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태어났거나 작품 속의 배경이 되는 상징적인 공간에 세우는 문학관은 그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 이후 문화 예술과 관련된 지역의 관광 상품 전략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문학관 또한 지역의 특정 작가, 혹은 작품의 배경을 중심으로 설립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대개의 지역의 경우 재정은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 미래에 지역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개발 일변도의 정책에서 일부 우회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관심을 쏟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 지역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립되는 문학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취지와 목적, 운영 방법론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검토 분석이 당연히 따르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의 경우를 보면 얼마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학관은 단순한 개인 작가의 박물관, 또는 문학적 사료관 정도에 지나지 않거나 몇몇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에 그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문학과 관련된 지역의 어떤 행사나 축제 등은 지역주민의 일부 극소수 계층을 위한 집안잔치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앞으로 좀더 확장된 문화운동으로서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책을 읽지 않는 나라의 상위권에 속해있다는, 더구나 문화의 변방인 지역주민에게 생소한 문학관을 어떻게 홍보 운영할 것인지, 심층적인 분석이 절실하다. 발제문

에서 보듯이 사이버 상의 온갖 정보나 하위문화개념으로 취급받던 만화, 게임, 영화, 인터넷소설 등을 가장 새롭고 발 빠른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일반 대중을 어떻게 고전적 의미의 인문학적 창고쯤으로 생각하는 문학관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의 문학관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출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또 그에 맞는 해결책이나 대안 또한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예를 들자면 법제화된 규정이나 지방행정부의 조례 같은 것으로 전체적인 거푸집을 만들어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예컨대, 현재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설립 추진 중인 노작 홍사용 문학관 또한 화성시와 시행사와의 줄다리기를 끝에 일부는 지원받고 일부는 자부담 형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중앙정부나 화성시가 정책적인 엄격한 조례나 법제화된 규정 근거로서 신도시 건설 승인의 조건으로 문화 관련 아이টে임을 포함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문화 관련 신도시의 승인 조건은 설치 조형물 정도에 그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신도시 승인 과정 중에 그 도시의 문화 콘텐츠는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지역의 중요한 향토문화재는 물론이고 역사 속의 사건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기왕에 대물림해온 그 지역의 정신 문화 유산을 신도시 혹은 한 지역의 문화 모토로 삼는다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 한 가지 정도는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탄 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노작 홍사용 문학관은 지역주민을 흡수하는 문화 코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만, 한 지역의 문화적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학관 건립 후에 딱딱한 인문학적 접근보다 능동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역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기호에 따라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위해 문학적 형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문인 육성, 책 읽기 릴레이를 통한 토론의 장, 등 문화대학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나아가 좀더 폭 넓은 의미의 지역 통합 전시관이나 자료관, 혹은 연령별 놀이마당, 등 다양한 계층과 인자들의 요구를 해당 문학관의 특성과 연결해 호흡을 함께 맞추어 가야한다.

또한 운영 관리 면에서도 이미 설립 운영하고 있는 여타의 문학관이나 인공 조성된 문학 마을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약하나마 소득을 내고 있듯이 작가와 작품 속의 중요한 소재와 이미지들을 통한 캐릭터, 혹은 먹을거리와 놀이, 북 카페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정 지역 상품 개발도 함께 맞물려 감으로서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자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문학관은 이렇듯 설립보다 설립 이후 운영의 방식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유, 그리고 지역의 여타 단체와 유기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폭 넓은 차원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주도적인 일변도에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은 물론 전문화된 조직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발제문의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학관은 중앙과는 차별화된 지역의 문화 담론을 생산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문학관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흡수하는 방식에 있어 앞서 언급한 개략의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개될 문화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소프트웨어)이 성패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에 대한 토론문

지역문학관은 어떤 토양 위에 건립되는가?

표 신 중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

경기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지역의 문학활성화라는 과제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문학은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 지원은 그 성과가 쉽게 드러나는 공연예술에 치중되었고 문학과 미술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거나 전무해서 이를 보완할 정책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2004년도부터 문학과 미술 분야의 별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중견작가의 전시회와 작가론집 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지원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¹⁾

그에 비해 문학은 작고문인에 대한 비평집 발간, 아마추어문학을 위한 사이버백일장²⁾ 외에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사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문학상 신설, 별도의 기획공모사업 등 다양한 제안을 검토했으나 문학이 갖는 근본적인 위기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학 독자의 급격한 감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학의 내적 동력 약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고 특히 지역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린 인프라를 통한 문학지원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발제문의 기초가 된 “경기문학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입니다.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문학관 정책연구라고 생각되는데 기본 개념의 정립부터 정책방향까지 완성도 높은 연구성과를 내주신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미술분야는 저명한 비평가들이 10~12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작품론을 집필토록 하고 이를 ‘기전미술’이라는 제목의 평론집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방식은 다르지만 선정된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트페어 형식으로 작품을 판매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주제전을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공미술을 분야이어서 작가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년 말에 종합전시 및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2) 작고문인 10인에 대한 비평문과 문학지리학 관련 글이 수록된 단행본이 2006년 8월 8일 발간예정이며 수필을 대상으로 하던 사이버백일장을 2006년부터는 산문과 운문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문학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며 예상되는 어려움 뿐 아니라 의외의 난관에 부딪치는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현실적 방도를 찾는 것이 바로 문학지원정책의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자 뿐 아니라 함께 자리하신 문학인들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일 것입니다.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역에서는 공공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행정기관의 이해가 관건인데 현재는 지역마케팅(city marketing), 구체적으로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양평의 소나기 마을도 관광과를 통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문학관이 건립되더라도 전문인력, 사업전개를 위한 예산지원까지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발제에 언급된 관련 법규가 구비되거나 개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그리 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문학관 건립 예산 (건립비 20억~50억 추정)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학관이라고 꼭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기존 타 시설도 활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로 3층 전체를 박두진 자료관으로 꾸민 안성시립도서관을 들 수 있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유품을 전시 뿐 아니라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고 온라인 자료실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안성도서관과 안성시가 합의하고 약간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훌륭하게 문학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집필실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혹시 해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지역문학관의 특성상 한 두 사람의 전문인력 만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상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고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없다면 고립된 섬과 같은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이 문학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은 지역문학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문학인들이 공동의 목적의식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문학과 관련이 있는 교사 (교수) 등 주변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도서관은 시민운동차원에서 추진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지역문학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문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중앙(서울) 대 지역이라는 대립 구조로, 다시 말해 문학의 변방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한 문학평론가의 지적대로 지역에 살아도 지역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소위 중앙문단의 흐름에만 관심있는 작가와 완전히 문학의 변방에 놓여있다고 간주하면서 열등의식과 중앙문단에 대한 울분에 찬 두 부류의 작가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관의 추진,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문학관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문학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문학관이 지역문학을 위해, 더 나아가 한국문학전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의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MEMO

MEMO

MEMO

MEMO